

# 문화 서클

2026 07 VOL. 233

문화+서클



서울,  
예술이 되다

|   |    |   |
|---|----|---|
| S SEOUL +   | 03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
|   | 07 | 인포그래픽<br>대학로, 사유하는 청춘들의 아지트   |
|   | 14 | 문화의 창<br>한국음악적 요소를 서양으로, 김진희의 '살아있는 음'과 너른 혁신<br>Delivering Korean Musical Elements to the West: the Informed Innovation of Kim Jin Hi's "Living Tones" |
|   | 42 | 지금, 서울다움<br>서울의 철도, 동아시아 메가시티의 초상<br>Seoul's Railways: A Portrait of the East Asian Megacity  |
| F FOCUS +<br>서울을 바꾸는<br>창작의 요람,<br>서울문화재단<br>레지던시 | 54 | 로컬 리포트<br>복지가 아닌 삶의 일부로서 문화-금천문화재단 서영철 대표이사   |
|   | 20 | 읽다<br>예술가의 작업실에서 도시의 문화 인프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
|   | 22 | 만나다<br>예술이 싹을 틔우고 숲을 이루는, 서울문화재단 레지던시<br>연희문학창작촌/금천예술공장/신당창작아케이드/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서울무용센터  |
|   | 32 | 듣다<br>사진 한 장으로 엿보는 얼어뼉 예술가의 방   |
| A ARTS +  | 08 | 예술가의 진심<br>이수지,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   |
|   | 38 | 복지국가와 예술<br>함께 있지만 보지 못하는   |
|   | 50 | 예술인 아카이브<br>조혜영   |
|   | 52 | 예술인 아카이브<br>신정균   |
| C CULTURE +                                       | 40 | 일상의 길목에서<br>지역 소멸 시대, 문화의 가치를 찾다  |
|   | 46 | 인사이드<br>우리금융미래재단과 서울문화재단, 맞잡은 손으로 문화 생태계를 감쌀 때  |
|   | 58 | 페이퍼로그<br>감상을 넘어 경험하고 기억하도록-오예담 국립국악원 장악과 관객개발팀 마케터  |
|   | 60 | 해의는 지금<br>예술로 갈등하는 세계의 축소판,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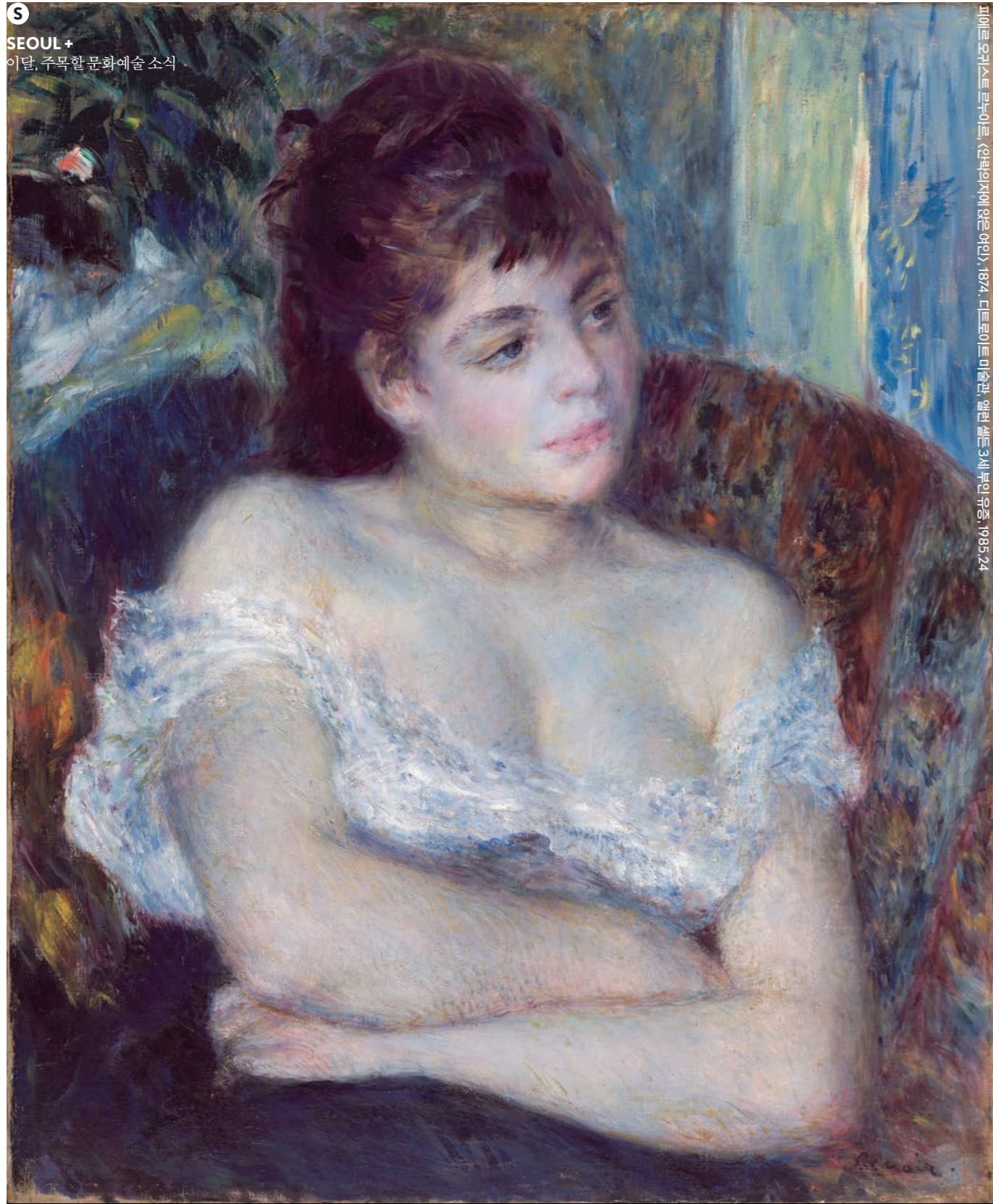
발행인 송형중 편집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번역 evener 인쇄·제작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E. monthly@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인스타그램 @monthly\_sfac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6년 7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신당 프로젝트 전시 <Room no.707>**  
 2026년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 자체 기획 전시 '신당 프로젝트 전시SPE' 중 두 번째 전시가 열린다. 김도영·박지은 두 작가가 협력해 마련한 공간을 살펴보자.  
 7월 9일부터 26일까지 | SASS 갤러리(서울중앙시장 지하) | 02.2232.8831



**피어나다 프로젝트 part.2 <파도를 넘어 피어나다>**  
 청한장학회 후원으로 운영되는 '피어나다 프로젝트'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프로그램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에서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9명의 청소년 참가자가 느낀 경험과 감정을 엮어 무용 공연으로 풀어낸다.  
 7월 12일 | 서울무용창작센터 | 02.2106.1302



3  
SEOUL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인상주의에 얽힌 여인>, 1874. 디트로이트 미술관, 앨런 켈트 3세 부인 유증, 1985.24

**<인상주의를 넘어: 르누아르·드가·고흐·마티스·피카소>**  
 미술사의 흐름을 바꾼 근대미술 걸작이 한국에 대거 소개된다. 미국을 대표하는 공립 미술관인 디트로이트 미술관의 소장 명작 52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로, 사실주의부터 입체주의·파리파까지 100여 년에 걸친 미술사의 전환을 조망한다.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술사를 감상할 기회다.  
**8월 23일까지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02.399.1000**



**감각놀이 체험극 <빨간 열매>**

10개월부터 20개월 사이 영아와 가족을 위해 금천문화재단이 2026 기획공연 더작은공연장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지는 작가가 쓴 동명의 그림책 『빨간 열매』를 원작으로 삼아, 아기공이 동물들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라이브 연주와 인형극으로 펼쳐낸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예술 경험의 시간.  
**7월 17일 | 금천뮤지컬센터 | 070.4172.4084**



**2025 두모포 뮤지컬 페스티벌**

두드러리 모여라! 포용하라!! 7월 4일 오후 7시 성동구 옥수역 하부 한강공원에서 두모포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린다. 성동구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의 하나로, 두모포에서 거행된 데마도 정벌 출정식을 모티브로 기획했다. 퍼포먼스와 뮤지컬 갈라를 비롯해 스트리트댄스 공연, 체험 프로그램, 마켓, 먹거리 장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뱀보다 두려운 것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마련한 올여름 새 전시. 창작 과정에서 마주한 '권태'를 터널이라는 공간으로 치환하고, 무너짐과 회복이 순환하는 감정의 흐름을 관람객이 함께 경험하도록 제안한다.  
**7월 18일까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02.3477.2074**



SEOUL +  
이달, 주목할 문화예술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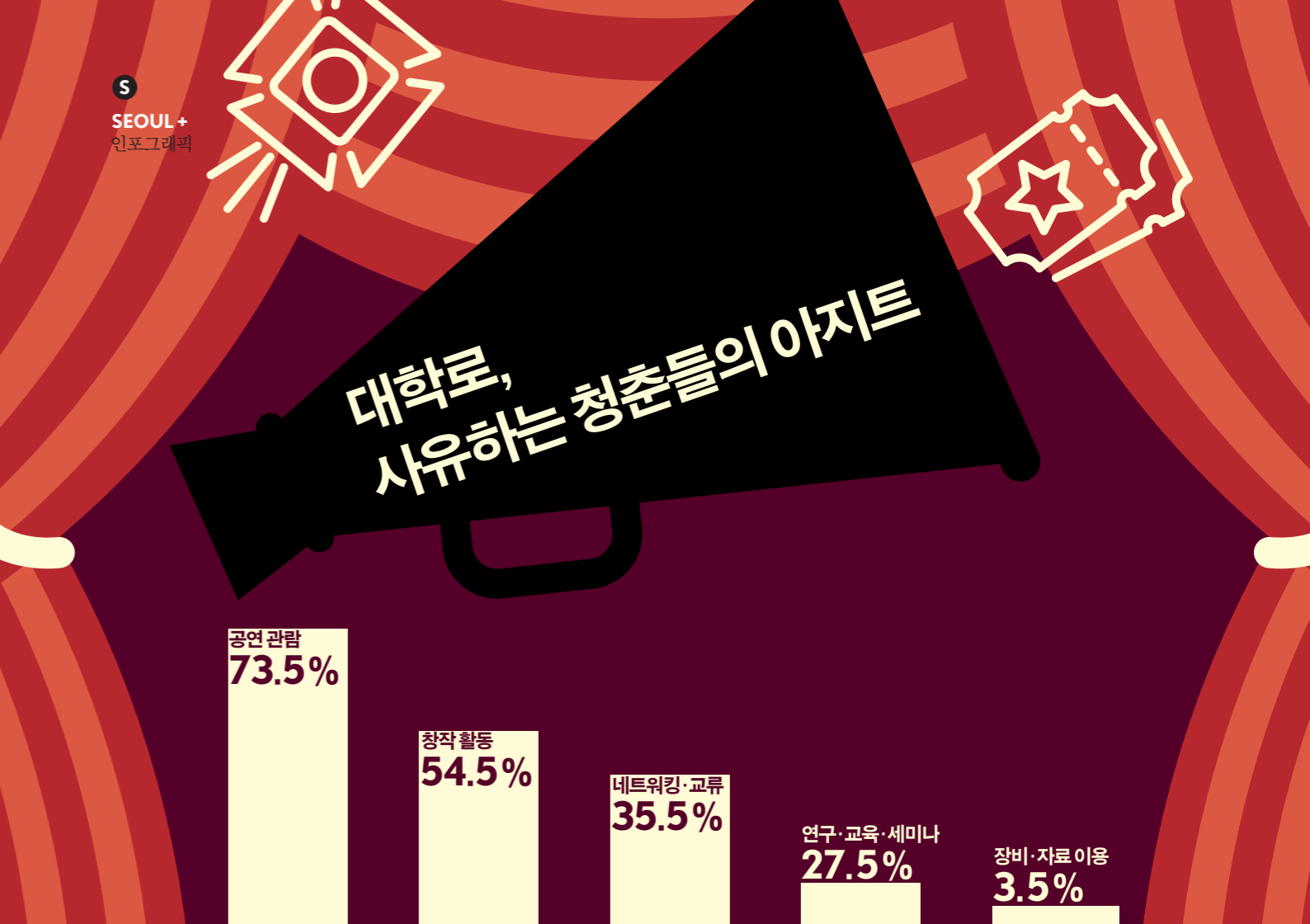
**충북도립극단 <갈매기>**  
서울로 초청된 지역 연극의 매서운 저력을 확인할 무대가 마련된다. 국립극단이 충북도립극단과 함께 연극 <갈매기>를 명동예술극장에서 선보인다. 창단 3년 차를 맞이한 '젊은 극단' 충북도립극단이 지난해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선보여 객석 점유율 81퍼센트를 기록한 작품으로, 김낙형이 각색하고 연출했다.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 1644.2003



**2026 여우락 페스티벌**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여류 음악 축제 '여우락'이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에서 열린다. 2010년 시작한 이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며 한국음악의 동시대성과 확장 가능성을 꾸준히 조망해왔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핵심 키워드로, 총 12편의 공연을 선보인다. 히트곡 슈퍼스타로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을 예술감독, 소리꾼 유태평양을 음악감독으로 선임해 대중음악 예술감독과 젊은 국악인 음악감독의 만남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의 만남,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적 무대, 동시대의 시선으로 우리 음악을 새롭게 해석하는 무대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우리 시대의 에투알 2026**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에 오른 박세은이 2024년부터 이끌어온 갈라 공연의 세 번째 무대를 준비했다. 올해는 파리 오페라 발레 무용수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의 동시대 발레 스타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어 더욱 기대를 모은다. 누레예프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의 호수> 파드되 같은 클래식 레퍼토리와 롤랑 프티·뱅자맹 밀피에·데이비드 도슨 등 오늘날 세계 주요 발레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던·컨템퍼러리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02.554.4166



1970년대 한국 연극의 중심지는 명동이었다. 대학로가 공연예술의 중심지가 된 건, 그 이름의 유래이기도 한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관악구로 이전한 뒤 1981년 문예회관이 이곳에 등지를 틀면서부터다. 소극장과 극단이 이곳에 자리잡으면서 점차 부흥했고, 청년 문화가 분출하며 대학로는 단순히 공연장이 많은 동네가 아니라 문화적 해방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대학로 풍경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공연 산업이 성장하며 뮤지컬 중심의 문화 상업 지구로 변화했고, 소극장 연극이 다져놓은 토양에서 창작뮤지컬이 싹을 틔웠다. 대학로의 지형은 점차 변화했고, 젠트리피케이션은 이곳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전을 비롯한 상징적인 공간이 문을 닫으며 대학로의 호시절도 막을 내리는 듯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대학로를 중심으로 공연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확산하고자 '대-락'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학로로 불리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대학로에서 시작된 공연예술이 인근 지역과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2025년 진행한 관련 조사에서도 대학로의 변화와 그림에도 변화하지

않는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로를 방문하는 이유로는 단연 공연 관람(73.5%)이 가장 높았고, 이후 창작 활동(54.5%), 네트워킹·교류(35.5%), 연구·교육·세미나(27.5%)로 나타나 공연을 보는 것만 아니라 창작을 비롯한 공연 문화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술인의 교류와 네트워크 등이 충분히 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6%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로라는 환경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대학로 내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곳은 서울 예술인지원센터(47.5%)이며, 대학로극장 쿼드와 서울연극센터도 40% 이상 응답을 기록했다. '인디음악의 메카' 홍대 앞, '힙스터의 성지' 성수동처럼 대학로 또한 '사유하는 청년들의 아지트'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해당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한 '대학로 공연예술 정보확산 및 교류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 보고서 전문과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st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수지,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

염은영 프리랜스 에디터 | 사진 Studio Kenn



때로 우리는 예술을 어려워합니다. 작가의 의도를 읽어야 하고, 정답에 가까운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술을 즐기는 주인공은 당신’이라고 꾸준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 없는 그림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이수지 작가입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락 연설문을 통해, 그는 예술을 향한 우리의 막막함을 다독입니다. “그림책의 독자는 그 누구보다도 창조적이고, 놀이에 진심이며, 가장 열려 있는 존재, 바로 어린이”(『만질 수 있는 생각』<sup>2024</sup>, 320쪽)라며, 어린이라는 수용자의 태도를 되새기게 하죠.

지난 4월 진은영 시인과 함께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를 출간한 이수지 작가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에서 열리는 서울시민예술학교 ‘내가 그리는 정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직접 만납니다. 그들이 가진 자기 안의 이야기를 풀어내 둘둘 말아볼 수 있는 두루마리 그림책 한 권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즐거움을 위해 예술 행위에 몸을 싣는 어린이가 되어보기를 바라는 마음. 이수지 작가의 그 마음이 만져지는 것만 같습니다.

### 지금을 기다려온 이야기

최근작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초록굴(우리학교) 출판사에서 진은영 시인의 생일 시 ‘그날 이후’를 토대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은영 시인이 함께 작업하고 싶은 그림 작가로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진 시인과는 2019년 예테보리 도서전에서 인연이 있었어요. 시인이 패널로 참여한 ‘사회 역사적 트라우마’ 강연을 듣는 것으로부터였죠. 이 자리에서 생일 시를 만났고,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지 절실히 느꼈어요. 저 역시 세월호 참사에 관해 완성하지 못하고 접어둔 작업이 있었는데, 이 제안을 받고는 오랜만에 그 그림들을 다시 꺼내보게 됐어요. 당시 작업도 현관문을 나서는 열일곱 살 아이의 뒷모습에서 가장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이었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거든요. 시인의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장면의 갓난아기 얼굴과 딱 겹치는데, 그 순간 이 이야기가 그림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작업을 멈춘 까닭은 “작업이 뭉툭하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하셨어요. 이번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요?

그림에 대한 명확한 상을 갖게 됐어요. 세월호 참사가 있는 지 12년이 흘렀잖아요. 그사이 제 아이들이 자랐어요. 이 작업을 시작하던 때 첫째 아이가 열일곱이었습니다. 작업을 처음 하던 당시에는 10대라는 그룹에 대해 속속들이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 어느 날 아들이 수학여행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몸으로 느낀다고 할까요. 그제야 알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림책의 토대가 된 글이 유가족의 허락을 받고 그 아이의 육성으로 표현된 시였기 때문에, 이야기의 본질로 바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보편적이고 다양한 아이들을 그려내는 데 기댈 수 있는 뼈대를 얻은 것이죠. 지금이라는 때가 오기를 기다린 작업이었나 보다 해요.

이 책에 대해 “예뻐지면 좋겠다”, “화사한 책”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예쁘니까요. 그 자체로 아름답고 빛이 나잖아요. 질풍노도에, 말 안 듣는 10대들이라 해도 그 애들이 가진 예쁨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봐도 예쁨이 느껴지게 그리고 싶었고,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을 사용해 밝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인쇄할 때 색감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형광 안료를 섞어 채도를 높였어요. 이 책은 읽을 분들이 명확하잖아요. 유가족들이 어떻게 읽으실지 부담이 있었지만, 나아가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모든 독자분께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어요.

### 이야기는 당신에게 있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그림책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질문과 연결됩니다. 예술 향유로서의 그림책 읽기와 교육 도구로서의 그림책 읽기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 읽어주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미있게 읽으면 아이도 재밌게 읽어요. 저는 아이들을 혼내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책 안 읽어준다”였거든요. 책이 전부이던 시절, 엄마가 책을 쥐고 협박도 할 수 있는 행복한 시대였죠. (웃음) 내용이나 작화가 아무리 노골적이고 무서워 보이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는 그 책을 어떻게 같이 읽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책을 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양육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작가님은 어떻게 읽어주시는지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교육 기부 활동 ‘책 읽어주는 엄마’를 하러 학교



에 갔는데, 한 엄마가 작가가 왜 그렇게 책을 재미없게 읽느냐는 거예요. 제가 매사에 좀 심드렁한 편이거든요. (웃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재미없게 대한 건 아니거든요. 매번 동화 구연하듯 읽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읽는 사람이 흥미롭게 책을 대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어떤 텍스트가 어떤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예상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재단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에스24’에 기고한 ‘상상의 우주를 열어준 책’에 대한 글이 생각나요. 『줄어드는 아이 트리흔』<sup>2007</sup>을 골랐고, 부모님 책장에서 꺼내 읽은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미혹한 최초의 책”이라고도 하셨어요.

고딕 느낌의 그림체, 흑백 처리, 인물의 동작 변화도 거의 없는 메다가 내용은 너무 이상하고 신비한 책이에요. 그 그림과 글의 태도가 주는 기묘한 즐거움은 동화 구연식으로 읽으면 의도가 안 살아나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더니 이번에는 얼굴이 초록색이 되었다고 끝나는 순간, 그 말할 수 없는 만족감! (웃음)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서 아이는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 놀이터에서 노는 법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 한 독자는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 그림책”(『만질 수 있는 생각』, 133쪽)이라고 표현했어요. 독자 스스로 이야기의 여백을 채워나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유익에 가닿을 수 있을까요? 예술을 즐길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는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맥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몇 번 실패하면 ‘예술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하며 멀어지게 되고요. 제도권 교육은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 수업에서 기능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발견하거나 작품을 향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요. 그러다보니 예술에는 지나치게 권위가 부여되고, 작품 앞의 관람자는 위축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술은 굉장히 가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자기 느낌을 믿고 이야기해보는 경험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면서 예술과 조금씩 친해지는 거죠. 제 그림책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글이 없기 때문인가요?

대개는 그렇죠. 저는 어렵다기보다 친절하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다만 저는 독자들에게 어떤 놀이터를 만들어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더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고, 재미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가도 괜찮고요. 『파도야 놀자』<sup>2009</sup> 같은 책도 텍스트가 없기에 독자가 자기 경험과 기억을 자연스럽게 그 안에 넣게 돼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는 결국 독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거나 열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어린 시절이 투영된 『나의 명원 화실』<sup>2008</sup>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요. 주인공은 결과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가죠. 지금의 작가님처럼요.

『나의 명원 화실』에 등장하는 ‘진짜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이 관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찰에는 어린이·어른을 나눠 레벨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잘 보는 측면도 있죠. 이를테면, 어떤 어린이는 방금 지나간 사람 외투에 단추가 몇 개 달려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결과중심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걸 달성하겠다고 생각하면 경직돼요. 목적이 없어야 놀이라는 것이 성립되니까요. 행복했던 순간을 몇 가지 건져 올릴 수 있을 만큼 기억에 남아 있는 행복감이 있다면, 그건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게 있었으니 이 일을 계속하게 된 것 같고요. 아이들도 자기가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어른들이 정해주는 게 문제인 거죠.



출간한 작품 일부에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작가님이 이 일을 하는 데 가장 큰 자양분이 부모님이라 짐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직업인으로서 예술가는 아니셨고, 예술에 대해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셨어요. 예술 애호가인 거죠. 어린 제 눈엔 그런 태도가 좋아보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 대부분을 막은 적이 없으셨고요. 어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배운 점이죠. 그때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굉장한 행운을 누린 것이더라고요.

#### 예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즐거움

그림책 『눈 내리는 삼일포』<sup>2024</sup>는 동명의 소설(김연수)과 정가(솔솔)로 만들어지며, 하나의 연작 프로젝트를 확장한 씨앗이 됐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민예술학교 ‘내가 그리는 정가’는 솔솔과 함께하게 된 강좌라고요.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 <다담>을 통해 솔솔이라는 팀과 인연이 닿았어요. 토크 사이사이에 국악 연주를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제 책 『눈 내리는 삼일포』를 읽고 창작곡을 만들었더라고요. 정가를 직접 듣는 경험도 처음이었는데, 가사가 명확히 들리는 데다가 좋아서 크게 감동했어요. 그렇게 그들과 친해지면서 다른 행사도 함께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눈에 띄어선지 이렇게 시민 강좌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받게 됐어요.

그동안 많은 워크숍을 했겠지만, 대상이 50대 중년이라니 특별할 것 같아요.

개강 첫날부터 재밌었어요. 남성 수강생이 다섯 분이나 오셔서 사실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즐거워하시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더라고요. 첫 시간에 수강생 모두 돌아가면서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중 한 분이 어렸을 때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산에 오르면, 어떤 할아버지가 약수터 돌 위에 앉으셔서 “청산~리~” 하며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그게 그렇게 멋지고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그 노래가 정가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배워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수업 제목에 ‘정가’가 있어 신청하셨다는 거죠. 이런 게 참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잘 간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 용기 내어 잡는 것 말이에요. 이곳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계기로 모이셨어요. ‘이거(예술) 내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이시니 함께하는 입장에서든 즐거울 수밖에요. 솔솔의 조운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정가는

남이 들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가 듣기 위해서 하는 노래라고요. 그러니 노래를 잘 부를 필요도 없다고요. 우리 강좌는 솔솔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각자의 장르를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했어요.(웃음) 수업은 시조의 형식을 갖춘 자기 이야기를 하나 쓰고, 두루마리 형식의 그림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올해도 ‘바캉스 프로젝트’<sup>\*</sup>가 돌아온다고 예고했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이고요. 꾸준히 독립출판 작업을 병행해내는 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래도 되나?’예요. 애초에 바캉스프로젝트의 출발도 기존 출판 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자는 것인데요. 저는 이번에 반대로 가봤어요. ‘글 없는 그림책 작가’가 만드는 ‘그림 없는 그림책’을 만들어본 것이죠. 총여섯 권 구성이고, 전부 그림 없이 글로만 이뤄진 책이에요. 우리나라 옛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았고, 각 권에 능청감투, 충청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수박 이야기, 황해도 민요 ‘싸름’ 등을 다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다가오는 생각들을 놓치고 싶지 않는데, 이런 책은 제작 측면에서도 기존 출판사에서 내기 힘들니 이렇게 일을 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로서 출판을 스스로 해보는 경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해낸다는 측면에서 힘들지만 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깐요. 재미있어요.

바야흐로 『여름이 온다』<sup>2021</sup>, 『과도야 놀자』<sup>2009</sup>의 계절입니다. 사나운 기상이 예보된 울여름을 건너갈 독자들과 한 말씀 전해주시다면요. 아무리 더워도, 매일매일 비가 와도 다 지나갈 겁니다. 곳은 날씨 속에서도 그 순간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아갈 테고요. 세상이 다가오는 방식은 매번 다르고, 우리 상태도 다르잖아요. 오늘의 힘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대체 이 일을 왜 시작했지’ 생각하곤 해요. 직업도 그렇지만, 아이 낳고 기르는 일까지 포함한 얘기예요. 돌이켜보면 분명히 우리의 시작은 좋았거든요. 그러니 그때 볼 수 있는 가장 예쁜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아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이 많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매일 곡소리를 내면서 스트레스에 쌓여 살지만, ‘이렇게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 지독한 여름이 온다면, 온몸으로 맞아보는 겁니다. 그래, 와라 여름! 하면서요.(웃음)

<sup>\*</sup>‘바캉스 프로젝트’는 이수지를 비롯한 국내 그림책작가 18명이 본업 외에 휴가처럼 자유롭게 실험적인 독립출판물을 선보이는 아티스트 북 그룹 프로젝트다.

# 한국 음악적 요소를 서양으로, 김진희의 ‘살아 있는 음’과 너른 혁신

조세린 배재대학교 교수

1991년, 중국 난징예술대학에서 15개월간 고쟁·서에 수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나는 웨슬리언 대학에서 동아시아학 학사 마지막 해를 보내며 작곡가 겸 고쟁 연주자 왕창위안(王昌元)과 고쟁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주말마다 뉴욕으로 통학을 시작했다. 웨슬리언 대학으로 돌아와서는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일본 악기 고토도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2학년 때 훗날 내 삶에 중추가 되는 가야금을 만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장학금 신청 준비로 바쁘던 차에 고토 스승께서 작곡가 겸 거문고 연주자 김진희에게 연락해보라며 귀뜸해줬다.

김진희는 이승열 당시 국립국악원장에게 나에 대한 소개장을 써줬고, 그 편지가 효과를 봤는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내 삶의 여정에 있어 그토록 중차대한 시기에 내게 보내준 지지에 대해서는 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가야금을 배우고 1년이 지났을 무렵, 1993년 서울 범음악제에서 김진희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국립국악원에서 ‘경계 없는 세계...’를 연주했고 전자장구도 선보였다. (김진희는 이미 1989년에 전자거문고를 소개한 바 있다.) 공연을 보며 느낀 짜릿함은 여전히 기억난다. 하지만 당시 한국음악 전통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이던 나는 역사적 맥락에서 김진희가 이룩한 성과와 그 작품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1994~1995년 김진희·조셉 셀리가 국립국악원 외국인 대상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기에도 여전히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기에, 나는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다. 그 뒤 미국으로 돌아가 몇 년간 대학원을 다니며 그녀의 앨범 『거문기타

KomunGuitar』를 찾아 듣고 웰즐리 대학교와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공연도 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대면한 건 2016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였다. 김진희는 미국즉흥음악협회 소속으로 초청받았고, 나 또한 연계된 학회에서 글을 발표했다. 그동안 나는 김진희를 즉흥연주자로만 알고 있었다. 미국의 위대한 작곡가들과 함께 수학했으며 크로노스 콰르텟이 의뢰한 작품 ‘이음새’로 미국 커리어 초창기에 주목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 심지어 김진희가 2003년 전주산조예술제에서 나의 가야금 스승 지애리 선생님과 함께한 공연 〈산조 엑스터시〉에 대해 기고한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작곡가 김진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시기에 세상을 등진 7백만 이상의 영혼을 기리는 김진희의 작품 ‘코로나19 진혼제’에 대해 글을 쓰며 그녀에게 다시금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 무속의 셋김굿에서 영감받은 김진희의 ‘진혼제’는 망자의 영혼을 정화하고자 했다. 공연은 팬데믹 기간 미국 사회에서 불거진 반아시아 정서를 힐난하며 수많은 비극과 비판, 기원과 정화에 대해 절절하게 다뤘다.

그런 그녀가 회고록 『고대 한국의 뿌리와 서구 신음악의 이중성』을 펴내고, 일생에 걸친 작품 52곡을 전체 10시간가량 되는 9개의 CD 세트에 총망라한 『김진희 컬렉션』을 발표했다. 나는 미국·한국적 두 맥락 속에서 김진희가 작곡가로서 이룩한 것과 여전히 펼치고 있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한국 전통음악과 미국 신음악계에 대해 충분한 경력을 쌓았다고 느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이었다.

학자로서 글을 읽는 것과 글 속에 숨겨진 맥락을 고스란히 읽어내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는 20대 때 김진희가 본인의 작곡 신조인 ‘살아 있는 음’에 대해 설명하는 걸 처음 들었다. 당시에는 윤이상의 ‘주요음(Haupttöne)’ 개념과 비슷하다고 받아들였으나, 윤이상은 국악기를 연주한 적이 없었기에 김진희의 ‘살아 있는 음’이 주는 울림이 더 컸다. 이를 짚고 가는 이유는 내가 가야금 연주를 30년 가까이 한 뒤에서야 농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악의 ‘농현’은 오랜 시간 영어 ‘비브라토’로 번역돼왔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농현은 ‘죽어 있는 음(개방현)에 에너지, 즉 기(氣)를 불어 넣어 누르며 연주하는 기법이다. 김진희의 ‘살아 있는 음’은 한국적 음질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과 표현으로 그의 독특한 작곡 기법의 토대를 형성한다. 김진희의 작품에서 모든 음은 각각의 고유한 형태, 소리, 질감, 비브라토, 글리산도, 표현적 뉘앙스와 역동을 지닌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철학적 명령은 불교에서 왔으며, 무속적 표현에서 보이는 색과 뉘앙스를 포함한 음의 ‘생명력’에 대한 숭배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진희는 20세기 내내 한국인 작곡가 대부분이 윤이상을 따라 독일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한국적 특색이 ‘아주 얇게’ 풍기는 독일식 음악을 작곡했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국악기로 서양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자 했다.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저는 서양 악기로 한국적 정서를 담아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 이들은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모두 연주해 결과를 내려 시도한 반면, 저는 두 세계의 음악가들을 화합시켜 양쪽 모두 공연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제게 있어 ‘살아 있는 음’은 한국 음악적 요소를 서양에 전달하려는 수단입니다.” 그녀의 회고록과 웨슬리언 대학에 기증된 음반은 교류의 방식 자체를 바꾼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준다. 다시 나의 여정으로 돌아가 정리해보자면, 이제서야 나는 김진희가 처음부터 말해왔던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

## Delivering Korean Musical Elements to the West: the Informed Innovation of Kim Jin Hi’s “Living Tones”

Jocelyn Clark Professor, Pai Chai University

In 1991, after I returned to the U.S. from 15 months in China that culminated in studying *guzheng* and calligraphy at Nanjing Academy of Arts, I began commuting every weekend from where I was completing the last year of my undergraduate degree in East Asian Studies at Wesleyan University, to New York City to continue my *guzheng* studies with the composer and *zheng* player Wang Changyuan. Back at Wesleyan, I also continued studying Japanese *koto* as I had since my freshman year. As a sophomore, I had once encountered the *gayageum*, the instrument that would later become central to my life’s work, but I had not yet entered that realm. In my final year at Wesleyan, I was busy applying for post-graduate fellowships, when my *koto* teacher told me I should contact the composer and *geomungo* player Kim Jin Hi.

Kim wrote a letter introducing me to Yi Seung-ryeol, the Director of what is now called the National Gugak Center. Her words hit the mark and I was awarded a scholarship. I have always felt eternal gratitude to her for advocating for me at such a pivotal juncture in my life’s journey. About a year into my *gayageum* studies, I met Kim again in Seoul in 1993 when she came to the Pan Music Festival. Kim played *No World Improvisations* at the Center, where she also introduced her electric *janggu*. (She had already introduced her electric *geomungo* in 1989.) I remember the excitement I felt at the concert. However, at that time, while I was in Korea to study the country’s musical traditions, I did not yet know enough to really understand what Kim had accomplished and how groundbreaking her work was in the Korean context.

I was still in Seoul in 1994/95 when Kim and Joseph Celli started the summer program for foreigners at the Center, and I got to know her a little better. I moved back to the U.S. for a few years to go to graduate school, where I picked up her album *KomunGuitar* and went to see her play at Wellesley College and at the Asia Society in New York. It was not until 2016 that we would meet again in person when Kim was invited to the Jeonju Sori Festival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mprovised Music conference where I was also presenting a paper.

During all this, I thought of Kim mostly as an improviser. I was aware she studied with the great American composers and that her career in America took off early when the Kronos Quartet commissioned *Linking*. I had even written about her *Sanjo Ecstasy*, which she played with my *gayageum* teacher Ji Aeri at the Jeonju Sanjo Festival in 2003. But I still did not understand her as a composer. It would be during COVID-19 when I found myself writing about her again that my eyes and ears (and heart) would be opened wide by her *A Ritual for Covid-19* in memory of the more than seven million souls who left the realm of our world during the pandemic. Inspired by the shamanic *ssitgimgut* ritual, Kim’s Ritual was intended to purify the deceased’s spirits. The performance poignantly articulated the enormous tragedy, grieving, praying, and, finally, purification, while rebuking the anti-Asian bias that had arisen in America during the pandemic period.

Now that she has published her memoir *Duality of Ancient Korean Roots and Western New Music* and released her life’s work *The Jin Hi Kim Collection* in a nine CD boxset with 52 tracks (ten hours!), I feel that,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have sufficient experience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he American new music scene) to fully appreciate what it is Kim has done and is doing as a composer—in both the American and Korean contexts.

It is one thing to read words as a scholar, and another to come to a deep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behind the words. I was in my 20s when I first heard Kim articulate her compositional concept “Living Tones.” Back then, I might have conflated her approach with Yun Isang’s “Haupttöne.” But, because Yun was never a player of Korean instruments, Kim’s “Living Tones” reaches deeper. I say this because only after almost three decades of playing *gayageum*, have I started to be able to embody all that *nonghyeon* (lit. “string play”) requires. Historically, *nonghyeon* has been translated into English as vibrato. But it is much more than that. It is playing with pressure on each string adding *gi*—energy—to an otherwise “dead” note (the sound of an “open string”). Kim’s “Living Tones,” her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 of Korean tone quality, forms the conceptual basis of her unique compositional method. In her works, each tone embodies its own individual shape, sound, texture, vibrato, glissando, and expressive nuances and dynamics. “Its philosophical mandate is from Buddhism,” she explains, “a reverence for the ‘life’ of tones, including the color and nuance articulated from shamanic expression.”

In her memoir, Kim recalls how, during the 20th century, most Korean composers followed Yun Isang to Germany and came back composing German-style music in which Korean flavor was “very subtle.” Their intention was to create new sounds for Korean instruments with Western influences. She writes, “My intent was to create new sounds for Western instruments with Korean attitude. . . . Their attempt was to get the result by performing on both Korean and Western instruments themselves. My attempt was to collaborate with Korean and Western musicians and get the result from each side of the contributions to the performance.” She continues, “To me, ‘Living Tones’ is a method by which I can deliver Korean musical elements to the West.” Her memoir and recordings—an archive of work held by Wesleyan University—reveal Kim Jin Hi as a composer who did exactly that—change the terms of the exchange. Now, well into my own journey, I finally understand what she has been saying from the beginning.

# 서울을 바꾸는 창작의 요람,

## 서울문화재단 레지던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은 예술가에게도 마찬가지다.  
인쇄공장과 시장 지하상가처럼 쓰임을 다한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어 탄생한 서울문화재단 레지던시는  
예술가에게 맞춤형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다. 서로의 다정한 동료가 되고,  
시민에게는 일상 속 예술을 선물하는 곳, 도시를 문화로 다정하게 물들이는 이곳의 이야기를 살펴봤다.

#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도시의 문화 인프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백아영 미술저널리스트

예술가에게 작업실의 의미는 남다르다. 작품을 만들고 실험하는 곳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창작 활동의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작업 공간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 실정이다. 많은 예술가가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가거나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레지던시는 작업 공간과 함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시 안에서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티스트 레지던시(Artist-in-Residence)는 예술가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1900년 무렵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후원자들이 예술가에게 게스트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고, 예술가 공동체에서 출발한 레지던시는 도시와 단절된 자연 속에서 외부 방해 없이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1907년 설립된 미국의 맥다웰 콜로니(MacDowell Colony)[2020년 들어 이름에서 '콜로니'를 삭제했다]가 좋은 예다. 이후 1960년대에는 사회에서 벗어나 창작에 몰입하는 형태와 지역 사회와 소통하면서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형태로 발전

했고, 1990년대에는 서구권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지역 예술 생태계와 국제 미술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작업실 지원에 연구, 협업, 전시,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 등을 아우르는 창작 플랫폼으로 그 개념을 확장했다.

서울의 공공 레지던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레지던시는 주로 시각예술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금천예술공장·신당창작아카이드·서울무용센터·연희문학창작촌·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등은 시각·공예·무용·문학·장애예술로 지원 장르를 나눠 각 분야에 맞는 환경을 조성한다. 무용 레지던시에서는 넓은 연습 공간을 제공하거나 문학 레지던시에서는 집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장르마다 필요한 물리적 조건을 공공이 직접 마련한다.

서울에서는 산업 구조 변화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비어 있던 공간이 창작 거점으로 재탄생한 사례가 많다. 금천예술공장은 인쇄 공장 자리에 생겼고, 신당창작아카이드는 전통시장 지하상가이던 공간에 들어섰다. 기존 공간의 역사와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용도를 더하는 방식은 도시 재생의 한 형태이자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임대료가 올라 예술가들이 밀려나는 상황에서도 공공이 공간을 직접 운영해 예술가들이 서울 안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물론 그렇다고 레지던시가 예술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여전히 생활비와 제작비 부담은 예술가의 몫이다. 그럼에도 많은 예술가가 레지던시를 찾는 이유는 이 공간이 주는 장점과 영향이 꽤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업 공간 유무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직접적이다. 작업실 크기나 조건은 작품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능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예술가에게 작업 공간은 창작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다. 특히 무용이나 설치미술처럼 넓은 공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작품의 형태까지 바꿔놓기

도 한다. 천장 높이는 설치 작업의 규모를 좌우하고 안무 동선을 제한한다. 반입할 수 있는 자재의 크기가 곧 작품의 크기가 되기도 한다. 공간은 예술가가 무엇을 만들지보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하는 셈이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가 작업 공간의 한계 앞에서 아이디어를 바꾸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경험을 반복한다.

레지던시의 가치는 작업 공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맺는 관계가 예술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함께 작업하는 동료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에서 레지던시에서 만난 작가들과 학창 시절 친구 못지않은 유대감을 쌓는다고 말한다. 오픈 스튜디오, 비평가 매칭, 기관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형성된 관계는 이후 협업이나 전시로 이어져 창작 활동의 새로운 기반이 되기도 한다.

예술 생태계의 관점에서 레지던시는 신진 예술가가 제도권과 처음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갤러리나 미술 기관과 접점이 적은 젊은 예술가에게 레지던시는 자신의 작업을 알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레지던시에 입주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주는 이력이 되기도 한다.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전시 이력이나 학력 외에도 레지던시 경력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오갈 정도다.

그렇다면 레지던시는 오로지 예술가만을 위한 공간일까? 시민들은 오픈 스튜디오, 전시, 워크숍,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예술가의 작업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 레지던시가 있는 지역에 문화적 활력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레지던시를 그저 작업실을 지원하는 제도로만 취급하기는 어렵다. 특히 서울의 공공 레지던시는 예술가 개인을 지원하고 유휴 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해 지역 사회와 예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이 예술가의 창작 환경에 개입하는 문화 인프라로써 레지던시가 꼭 필요한 이유다.

# 예술이 싹을 틔우고 숲을 이루는, 서울문화재단 레지던시

## 서울시 최초의 문학 전문 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

위치 | 서대문구 중가로2길 6-7  
분야 | 문학 전 장르(시, 소설, 어린이·청소년문학, 그림책, 희곡, 수필, 번역, 비평)  
개관일 | 2009년 11월 5일  
정보 | 인스타그램 @artspace\_yeonhui 웹진 [비유] sfac.or.kr/literature



©Studio Kenn



옛 시면전역원역시면모습

서대문구 연희동에 자리한 연희문학창작촌은 작가에게 작품 집필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문학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09년 옛 시사편찬위원회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했으며, 주택 형태의 4개 동이 작가의 집필실과 문학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돼 장·단기로 각기 입주한 작가에게는 개인 집필실 1개 실을 제공하며, 공용 주방과 세탁실, 책다방연희(도서관), 세미나실, 야외무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1,230명이 넘는 입주예술가가 거쳐 갔습니다.

입주예술가 월간 교류 프로그램 '연희의 오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티타임을 열거나 다도 프로그램, 탐조 프로그램, 포트럭 파티 등 이벤트를 통해 입주예술가가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연희동이라는 위치 특성상 출판사를 비롯한 문학 분야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 미팅과 같은 외부 협업이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도심 속 울창한 숲에서 온전히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는 것이 최고의 복지로 꼽히기도 합니다.

연희문학창작촌은 올해부터 국내외 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대리바트의 후원으로 책다방연희 공간을 리모델링했으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대상 문학 워크숍 '문학레시피'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과 함께 입주예술가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도 열어 작품과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여러 해외 기관과 레지던시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있으며, 웹진 [비유]의 시와 소설 작품은 한국문학번역원과 협력해 영문으로 번역한 뒤, 내년 'KLWAVE'(klwave.or.kr)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입주예술가 정기 공모와 예술창작활동지원 공모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외에 연희문학창작촌에서는 웹진 [비유]를 발행하고, 관련 사업으로 '문학으로 모이는 방법들 2026'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이나 연희문학창작촌 인스타그램, 웹진 [비유]에서 확인해주세요.



### 2026년 상반기 입주예술가

김다혜 김승일 김진경 나수민 나지환 도수영 박다래 박서현 박우연 박정하 박지선 박지일 서윤빈 소취 신원경 신윤주 오산하 유은실 유행두 윤순례 이경현 이반림 이수진 이정화 이희수 임수현 임주아 임현 전하영 정선임 정지윤 조우리 한지혜 한창훈

##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각적인 예술 실험과 교류를 촉진하는 시각예술 창작 플랫폼 금천예술공장



위치 | 금천구 범안로15길 57  
분야 | 평면(회화), 입체(조각·설치 등), 미디어(영상 등), 퍼포먼스를 비롯한 시각예술 전 장르  
개관일 | 2009년 10월 7일  
정보 | 인스타그램 @art.space.geumcheon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sas\_g

독산동은 국내 최초의 내륙공업단지, 옛 구로공단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산업 구조가 점차 지식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며 도심 내 용도를 잃은 유휴 시설이 생겨났고, 금천예술공장은 용도를 잃은 공간을 예술공간으로 되살리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1978년에는 전화기 코일 공장, 1991년부터는 인쇄 공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2009년 10월 지금의 금천예술공장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과거 공장으로 사용되던 특성을 살려 층고를 높게 구축한 창고동은 일반 스튜디오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대형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협업 또한 너끈히 소화하는 공동 작업장이자 복합 예술공간으로, 금천예술공간만의 독보적인 인프라입니다.

창고동 지붕 위에 자리한 아트로봇은 이곳의 랜드마크로, 1기 입주예술가인 이기일 작가가 개소 당시 제작한 것입니다. <프로파간다>라는 제목으로, 6.5미터 크기를 자랑합니다.

금천예술공장은 산업 단지와 주거 지역이 겹치는 곳에 자리해 도시의 변화와 노동, 지역 공동체 등 사회적 맥락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의 기억을 보존하는 동시에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 지역사회가 그러한 예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창작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소 이래 2025년까지 43개국 약 528명(팀)의 예술가가 금천예술공장을 거쳐 갔습니다. 현재는 17기 입주예술가 16명(팀)이 이곳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천예술공장의 장점은 워낙 많습니다. 물임도 높은 작업 환경을 위해 24시간 출입 가능한 개인 작업실이 주어지고, 각종 기자재의 대여를 지원하며, 운영사무실과 입주예술가 간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는 높고 트인 작업실 공간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창고동 공간에서 작업한 결과를 3층 전시실에서 곧바로 시물레이션해볼 수 있다는 점도 유기적인 창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점도 크지요.

입주예술가에게는 평론가·큐레이터·연구자 등 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창작 관련 자문, 교류 및 비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요 조사를 거쳐 입주예술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 워크숍을 진행하고, 3층에 자리한 대형 전시실 PS333을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프로필 사진 촬영과 아카이빙 등 홍보를 지원합니다.

연례 가장 큰 행사인 오픈스튜디오는 입주예술가의 작업실을 개방하고, 창작 과정과 작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관람객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고민과 실험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지요. 올해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기획 전시, 지역 리서치 프로그램, 야외 퍼포먼스×공연, 시민 참여 워크숍 등이 진행됩니다.

2026년부터는 금천예술공장을 비롯해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과 금천구청·금천문화재단·아트센터 예술의시간·갤러리 범일윤수중점 타이거원Tiger1 등 금천구의 다양한 민관 시각예술 기관이 함께하는 '금천미술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각예술 자원을 연결해 예술가에게는 창작과 교류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시각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넓히고자 기획했습니다. 올해는 그 원년으로, 전·현 입주예술가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중단된 국제 교류 사업 역시 재개 예정입니다.

10~11월 사이 18기 입주예술가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일정과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이나 금천예술공장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2026년 입주예술가  
고요순 김은설 박관우 박성준 박소라 박예나 손수민 송민규 송석우 신정균 우민정 유해나 이민재 이수지 최은빈 한수지

## 서울시 대표 공예·디자인 특화 공간 신당창작아케이드

위치 | 중구 마장로 87 서울중앙시장 지하  
분야 | 공예·디자인  
개관일 | 2009년 10월 16일  
정보 | 인스타그램 @sdar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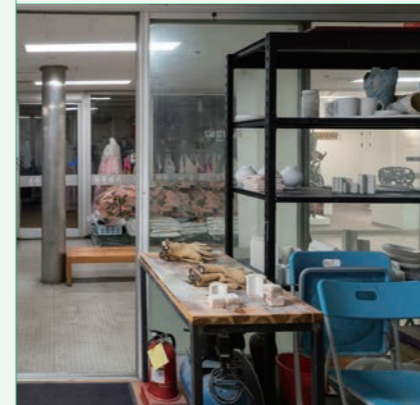


서울시 대표 공예·디자인 특화 공간으로, 입주예술가 대상의 다양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안정적인 작업 환경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971년 개소한 신당지하도상가는 용도 변경으로 조성된 공간이 아닌, 상업 목적으로 기획된 최초의 지하상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생선가게가 주류를 이뤘고, 이후 회센터, 포목점, 소매점 등이 들어섰으나 금융위기 이후 공실이 점점 많아지며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즈음 신당창작아케이드가 2009년 조성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날 아케이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방은 모두 미닫이 유리문으로 된 것이 특징이고, 이를 통해 입주예술가의 작업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개소한 이래 600여 명 넘는 입주예술가가 거쳐 갔으며 개별 공방과 공동 작업실, 사진실, 회의실, 교육실을 제공하고 기자재를 대여하거나 작가 대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방 간 거리가 길지만 공동 작업실 등 입주예술가끼리 부대끼는 공간이 많아서 다양한 아이디어나 작업에 관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특히 신당창작아케이드 내 작은 갤러리인 'SASS 갤러리'에서 2명 이상의 작가가 서로 협력해 운영하는 신당프로젝트 전시SP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작업 방식을 가진 작가들이 새로운 경향의 전시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또 연례로 열리는 기획 전시와 신세계L&B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테이블웨어 공예상품 개발 사업, 그리고 시민 참여를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작가와 작업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2025년 말부터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직결돼 교통이 한결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나름 서울의 중앙에 있어 어디든 이동하기 편리하다는 점이 모두가 손에 꼽는 장점입니다. 대부분 레지던시가 도시의 외곽에 자리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장점이지요. 또한 여러 기자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공동 작업실과 개인 공방을 제공하는 점, 서울공예박물관과 협력 진행하는 기획 전시 등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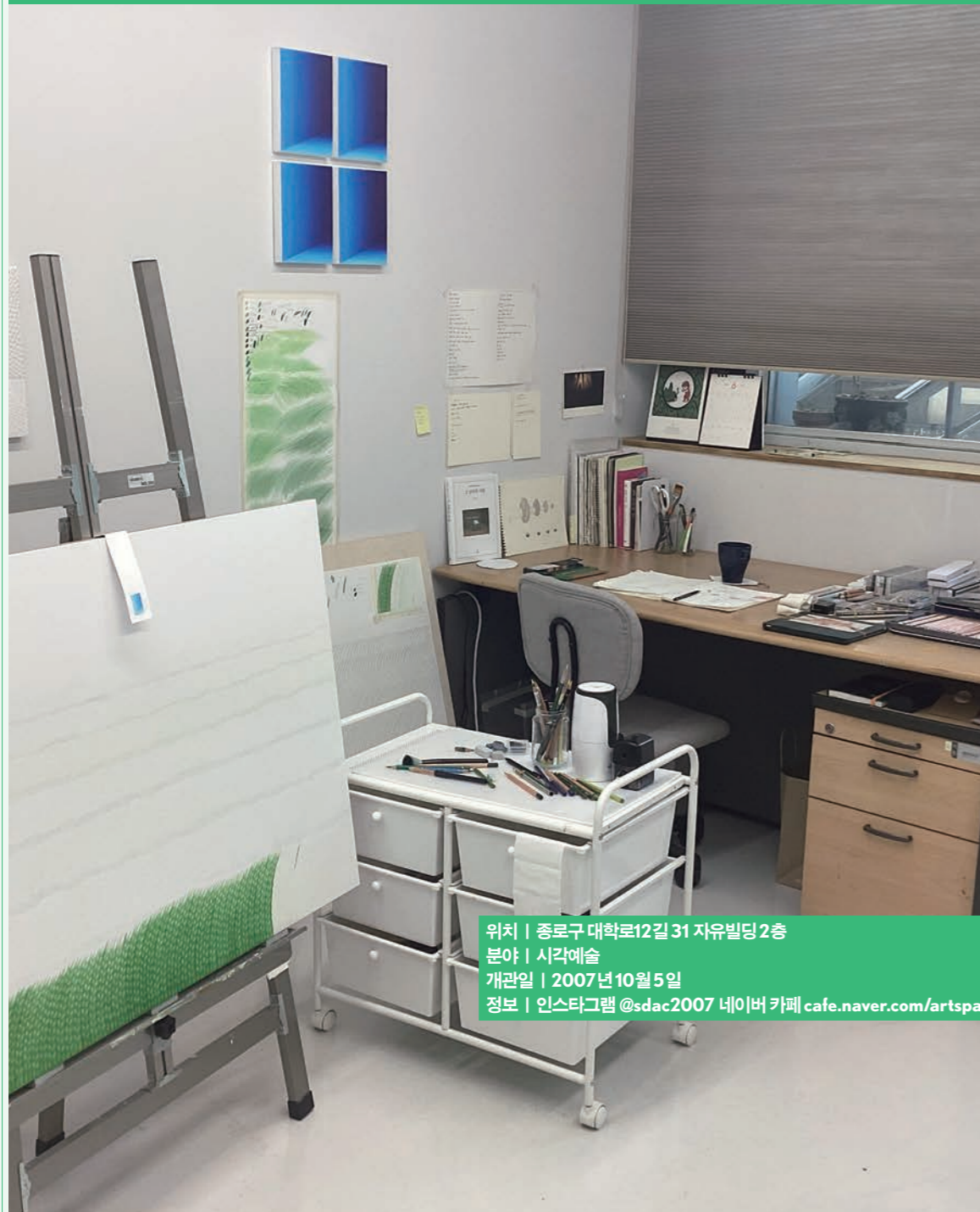
올해 큰 사업으로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울아트위크에 맞춰 오픈스튜디오가 진행되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기획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해 입주예술가 공모는 11월 중 진행합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인스타그램과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등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입주예술가

강고은 김도영 김동욱 김보경 김수아 김승기 김아야(김수연) 김예슬 김현지 노용원 노현주 박미서 박지은 백재원 서영민 안은경 양유진 오세린 윤지훈 이기는 이명희 이소명 이소진 이승진 이시평 이지수 임재현 임태완 정봉찬 정성아 정향수 조혜영 채민정 최민지 한우현

## 서울시 최초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인 전문 레지던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위치 | 종로구 대학로12길 31 자유빌딩 2층  
분야 | 시각예술  
개관일 | 2007년 10월 5일  
정보 | 인스타그램 @sdac2007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artspacejamsil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전신인 잠실창작스튜디오는 2007년 잠실종합운동장 내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 문화예술을 위해 계획된 장소는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장애예술가의 작업과 교류가 이어지며 창작 거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11년 서울문화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돼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잠실창작스튜디오'라는 이름을 거쳐 2022년 대학로로 이전해 현재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입주예술가를 선정하고, 1년간 개인 작업실을 제공합니다. 2007년 개관 이후 장애예술가 100여 명이 이 공간에서 작업하며 작품 세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입주예술가들은 작업실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참여 기회를 통해 작업 세계를 확장합니다. 또한 작업실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동시에 멘토링·비평·워크숍·필드 트립 등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입주예술가 기획 전시는 한 해의 작업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를 거쳐 간 예술가의 이후 작업과 활동으로 관심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에 전·현 입주예술가가 함께하는 포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현 입주예술가의 창작 생애와 작업을 기록하는 '휴먼 아카이브', 장애예술 생태계를 함께 이야기하는 '스닥살롱' 등을 통해 입주 이후에도 예술가 간 교류와 연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시설과 작업 환경, 그리고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입주 공모에 지원했다는 작가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고립된 환경에서 홀로 예술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작가에게,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단순한 작업실이 아닌 세상과의 소통 창구이자 예술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입주예술가의 작업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1 대 1 창작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포스트 레지던시 사업인 스택살롱을 통해 '뉴미디어와 함께 확장하는 장애예술'을 주제로 기술과 함께 변화하는 장애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10월 입주예술가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센터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전·현 입주예술가의 삶과 작업을 기록하는 휴먼 아카이브 출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거쳐 간 예술가들이 어떤 창작 여정을 이어왔는지 돌아보고, 그 기록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수 모집은 11월 중 공고 예정입니다. 센터 개관 20주년을 맞는 2027년,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입주예술가  
김미영 김승현 서은정 심규철 위혜승 임재현

## 시민과 무용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인프라 서울무용센터



위치 | 서대문구 명지2길 14  
분야 | 무용  
개관일 | 2016년 4월 8일  
정보 | 인스타그램 @seouldancercenter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dancercenter 유튜브 @seouldancercenter



2009년대 서부도로교통사업소 건물인 모습

무용 장르 특화 창작공간으로, 무용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기존 서부도로교통사업소 건물을 개·신축해 2011년 홍은예술창작센터로 개관했습니다. 무용 전용 공간을 포함한 융복합 예술 창작 공간으로 운영해왔고, 2015년 서울무용센터로 리모델링해 2016년부터 무용 장르 특화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에게는 약 5개월간 입주 공간과 연습실을 제공하며, 작업 사례비 및 1 대 1 전문가 자문 지원을 통해 리서치부터 작업 발표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입주예술가가 참여하는 과정 공유회에서는 중간 작업 결과물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진행해 창작 작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작업공유회에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해 유통과 확산의 기회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공연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무대 관련 기술 인력 또한 함께 지원합니다. 이외에 아카이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프로필 사진 촬영과 소셜미디어 홍보도 진행합니다. 입주예술가 사업 말미에는 레지던시에 입주 기간의 작업을 소개하고 관련 비평문 등을 담은 아카이빙 자료집을 제작합니다. 입주예술가와 운영하는 대표적인 행사는 작업공유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에 위치한 서울무용창작센터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연장 유통에 최적화된 작품 제작을 도모하고 시민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인데요,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상반기 입주예술가 작업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개소 이래 이곳을 거쳐 간 입주예술가는 157명(팀)입니다. 홍은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및 국제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5년간 50명(팀)의 입주예술가를 만났고, 서울무용센터로 재개관한 후에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1년 동안 107명(팀)의 입주예술가가 참여했습니다.

레지던시로서 서울무용센터는 연습실과 작업 공간이 함께 조성돼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험의 장으로서 입주 기간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매력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7월 초에 하반기 입주예술가 네 팀이 입주합니다. 이들은 9월 중 과정공유회, 11월 중 작업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 사업 공모는 예술지원 통합공모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이후 공고 예정입니다.



2026년 입주예술가  
곽유하 김승록 몽키페밀리 박소현 박주현 윤혜진 임은정 최시울

# 사진 한 장으로 엿보는 열여덟 예술가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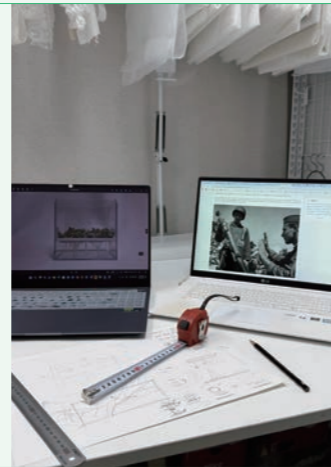
## 김동욱

### 신당창작아케이드 10호

**IN THIS PLACE** 나의 작업 공간을 말하자면 '인큐베이터'. 입주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매체를 다루며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창작자들과 교류하면서 작업의 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INTRODUCE MY NEIGHBORS** 각자의 작업에 깊은 고민과 열정을 갖고 임하는 이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관점을 접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MY PLAYLIST** 록발라드



## 김미영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작업실 3

**IN THIS PLACE**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오디오북으로 접했죠. 그는 여성의 창작 조건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재능, 기회, 돈. 6년 넘도록 제대로 된 창작 활동을 하지 못해 고립되고 있다고 느끼던 때 그 말에서 힌트를 얻었고, 이곳에 입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ALONG THE WAY**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꿈.

**MY PLAYLIST**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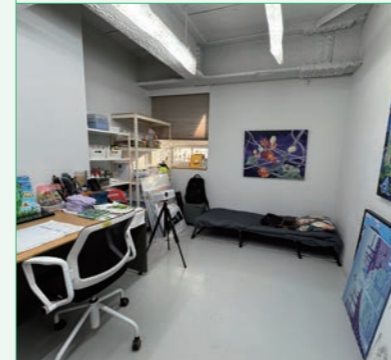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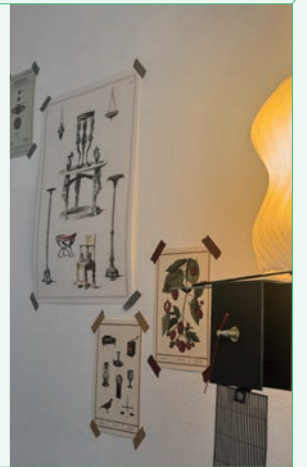
## 김승기

### 신당창작아케이드 32호

**IN THIS PLACE**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해 보고 싶던 AI 워크숍을 진행했고, 신당 창작아케이드 가마를 꼭 써보고 싶어서 3D 프린트와 슬립 캐스팅을 이용한 도자 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INTRODUCE MY NEIGHBORS** 이곳의 이웃들은 모두 '영감의 원천'이라 부르고 싶어요. 순박하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죠.

**MY PLAYLIST** 글렌 굴드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지브리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



## 김승현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IN THIS PLACE** 이곳은 나의 '미니 갤러리'.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하다 간이침대에서 잠들어보고 싶네요.

**INTRODUCE MY NEIGHBORS** 각자 자신의 작업에 열정적인 작가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마주치면 더없이 반가운.

**MY PLAYLIST** 메이플스토리 사운드트랙 'Aqua', 'Temple of Time'

## 김예슬

### 신당창작아케이드 27호

**IN THIS PLACE** 나의 작업실은 끝난 이야기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공간. 작업과 사람,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며 지금의 작업으로 이어진 시간이었어요.

**ALONG THE WAY** 입주 전에도 협업이나 교류에 대해 기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생활하며 예상보다도 더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의 작업실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자였다면 떠올리지 못했을 생각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MY PLAYLIST** 음악 대신, 동물 다큐멘터리



## 박소현

### 서울무용센터 203호

**IN THIS PLACE** 이곳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고, 오래 곱씹어도 후회 없는 작업을 완성해보고 싶었어요. 결과만 아니라 과정 자체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곳은 체계 생각과 움직임, 그리고 리서치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이는 창작의 창고입니다.

**ALONG THE WAY** 그래서 이곳에서의 입주 기간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나만의 작업 스타일을 찾아가는 '탐색'의 시간이었습니다.

**MY PLAYLIST** 적당한 리듬과 분위기가 있는 로파이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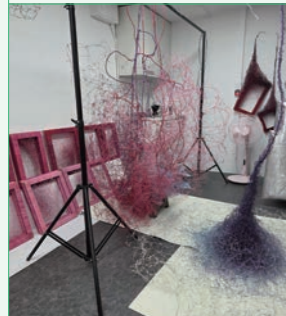
### 박지은

#### 신당창작아케이드 16호

**IN THIS PLACE** 무엇보다 온전히 나를 위한 개인 작업 공간이 필요했고, 다양한 작가들과 만나 영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ALONG THE WAY**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말한다면, '새출발'.

**MY PLAYLIST** 엘리자 폭스, 유튜브 'DUMP FLUSH' 채널의 'A Playlist for Relaxation (dawn in the woods)'



### 서영민

#### 신당창작아케이드 20호

**IN THIS PLACE** 무너지지 않고 '작가'로서 숨 쉴 수 있게 해준 공간.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가정과 분리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ALONG THE WAY** 그래서 이 공간에서 보낸 나의 시간을 표현한다면 '살아 있음'.

**MY PLAYLIST** 이소라 'Track 9'

### 송민규

#### 금천예술공장 8호

**IN THIS PLACE** 지나간 나날의 이미지가 수집되고 편집돼 새로운 추상적 구조로 재편되는 장소. 그래서 작업실을 꾸밀 때의 추구미 역시 '조용한 이미지 편집실'이었어요.

**INTRODUCE MY NEIGHBORS** 어느 인상적인 작가님을 만났고, 남은 시간이 더 기대됩니다.

**MY PLAYLIST** FM 93.1MHz



### 송석우

#### 금천예술공장 11호

**IN THIS PLACE** 금천예술공장은 단순히 스튜디오를 제공한다기보다 작가들이 각자의 속도로 머물며 유연하게 소통하고 작업을 확장하는 공간이라고 느꼈어요. 저 역시 여러 생각과 고민을 좀 더 깊이 실험할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작업 공간의 추구미는 '갑자기 누가 들어와도 10초 안에 괜찮은 척할 수 있는 상태'예요.

**INTRODUCE MY NEIGHBORS**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웬지 모르게 반갑고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작가들만 아니라,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는 사무실 선생님들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MY PLAYLIST** 사카모토 류이치, 닐스 프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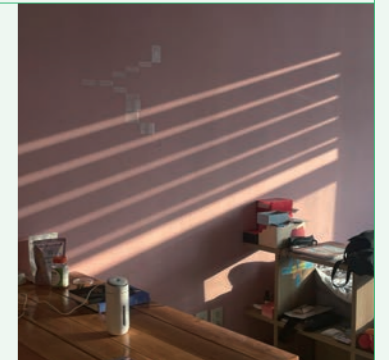
### 심규철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7호

**IN THIS PLACE** 큰 캔버스를 걸 수 있는 벽 한 면이 아쉬워서, 작업 공간이 필요해 이곳을 찾았어요. 지금 제 작업실은, 작업 방향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느라 뒤죽박죽이에요.

**INTRODUCE MY NEIGHBORS** 재료 탐색 과정에서 16기 동료 작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MY PLAYLIST** 애니메이션 주제곡



### 위혜승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201호

**IN THIS PLACE** 무질서 속의 질서. 작업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을 고민했고, 그 가운데 입주하게 됐습니다.

**INTRODUCE MY NEIGHBORS** 활발하게 만남을 주도하거나 모임을 열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간식과 담소를 나누는... '동숲' 주민 같은 분들!

**MY PLAYLIST**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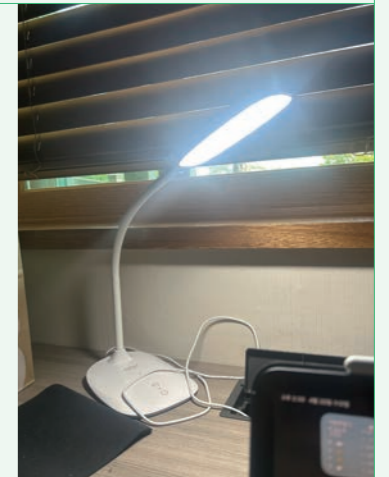
### 윤혜진

#### 서울무용센터 204호

**IN THIS PLACE** 적당한 편안함과 긴장감, 그 밸런스를 추구하며 작업 공간을 꾸몄습니다. 깨끗한 이부자리와 책, 인센스와 화분 등이 작업 바깥으로 저를 이끌어주고, 노트북과 칠판, 메모지, 스트레칭 도구 등은 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친구들이지요.

**INTRODUCE MY NEIGHBORS** 서울무용센터 상반기 입주예술가들은 저를 포함해 대부분 내향인인 것 같아요. 고요한 아침 인사와 작은 간식을 주고받던 시간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MY PLAYLIST** 쇼팽



### 이반림

#### 연희문학창작촌 112호

**IN THIS PLACE** 제 작업은 빠르게 한 편의 결과물을 만들기보다 오래 머물며 질문을 축적하고, 그 질문을 다시 언어와 장면으로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요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천천히 바라볼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창작자가 일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작업을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이곳 공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ALONG THE WAY**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요함'.

**MY PLAYLIST** 가사 없는 음악들

**이시평**

**신당창작아케이드 31호**

**IN THIS PLACE** 이곳에서 꼭 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작가와의 협업 전시. 이곳에 입주함으로써 여러 작가와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INTRODUCE MY NEIGHBORS** 3년간 함께 생활한 29호 윤지훈 작가는 차를 내주는 다정한 이웃이자 소식통이지요.

**MY PLAYLIST** 아스널 FC의 응원가 'Angel'



**임은정**

**서울무용센터**

**IN THIS PLACE** '몸'과 '인간'에 관심이 많은 저는, 물질과 비물질을 오가며 탐구하는 작업에 흥미를 느낍니다. 서울무용센터는 움직임 리서치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무용 생태계 안에서 '안무'라는 장르 실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ALONG THE WAY** 작업 공간을 경험하며 느낀 것은, 무조건 넓어야 한다는 것. 공간은 사고의 확장과도 직결되니까요.

**MY PLAYLIST** 뱅자맹 비올레 'Qu'est ce que ça peut faire?'



**임재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IN THIS PLACE** 내 우주를 알리기 위한 준비 공간. 제 첫 작업실이라 의미가 커요. 하루 종일 작업실에 머무르면서 개인 작업을 하고 다른 작가들과 교류해보고 싶었어요.

**ALONG THE WAY** 떠나고 싶지 않은, 하지만 이별이 찾아올, 그렇지만 아름다운 시간들.

**MY PLAYLIST** 힙합



**채민정**

**신당창작아케이드 28호**

**IN THIS PLACE** 이곳은 천천히 자라나는 작은 생각정원. 작업 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간이었으면 했고, 완성된 결과물보다 재료가 쌓이며 작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INTRODUCE MY NEIGHBORS** 작업 분야는 다르지만, 서로의 고민과 과정을 자연스레 나누며 많은 자극을 주는 사람들.

**MY PLAYLIST** 레니 크래비츠 'It Ain't Over 'Til It's Over'



예술을  
나의 취향으로  
깊게 이어주는

2026

서울문화

예술교육

포크그래

노아, 다오

www.moda.or.kr

2026년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이 서울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각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방법은 QR 태그 후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있지만 보지 못하는

최정상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제일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죠?” 이 질문은 길을 묻는 말이지만, 이에 대한 답은 한 인간이 평생 당고 싶었던 존재를 향해 돌아가는 시간이다. 화장실까지의 거리, 타인까지의 거리,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의 거리.

강연을 앞둔 장애 여성 인플루언서 청즈는 두 편의 원고를 품고 무대에 선다. 하나는 세상이 기대하는 이야기다. 밝고 긍정적이며 용감한 장애인의 서사. 다른 하나는 오래 묻어둔 이야기다. 분노와 상처, 침묵과 욕설, 그리고 엄마에게 끝내 건네지 못한 말들. 청즈를 흔드는 것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진실의 복수성이다. 끝내 두 편의 원고를 내려놓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쪽을 얘기하든, 둘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어느 한쪽만을 얘기하면, 둘 다 거짓말이 되지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의 삶을 단일한 서사로 정리하고 싶어 한다. 비극의 주인공이거나 극복의 영웅이거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삶보다 장애인을 둘러싼 익숙한 문장을 소비한다. 청즈의 피로 역시 그 지점에서 비롯한다. 자신의 삶이 타인의 감동을 위해 끊임없이 편집돼야 한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영어 제목 ‘Be Seen’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은 과연 타인에게 보일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존재

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장애인 인플루언서의 휠체어를 보고, 장애를 보고, 서사를 본다. 청즈를 보지는 못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보일수록 영향력은 커지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함께 있지만, 보지 못하죠. 사랑하지만, 보지 못하죠. 갈망하지만, 보지 못하죠.”

인식의 한계는 종종 존재의 한계가 된다. 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어쩌면 인간의 비극은 멀리 있는 대상을 외면하는 데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데 있다.

작품은 두 가지 침묵 사이에서 시작된다. 딸을 사랑하면서도 끝내 딸에게 닿지 못한 엄마의 침묵,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닿지 못한 청즈의 침묵

이다. 어린 시절 엄마는 청즈를 숨기려 했다. 다리가 가늘어 흉을 본다고 말했고, 손님이 오면 방에 있으라고 했다. 세상의 시선을 피하려 한 말들은 청즈의 몸보다 먼저 그의 존재를 움츠러들게 했다. 청즈가 마주한 것은 엄마의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옮겨 와 오랫동안 스스로를 바라본 시간이었다.

엄마는 사랑했지만 청즈에게 닿지 못했다. 대중은 응원했지만 청즈를 읽어내지 못했다. 청즈는 오랫동안 자신에게조차 도착하지 못했다. 청즈 역시 환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자신을 놓쳐왔다.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엄마에게 건네고 싶었던 두 번째 원고도 결국 나를 떠날라는 요청으로 수렴한다. 청즈가 바꾸고 싶었던 것은 몸보다도 엄마와 자신 사이에 놓인 침묵이었다.

공연이 끝에 가까워질수록 두 편의 원고는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 안에 공존하는 두 개의 진실로 드러난다. 청즈는 둘 가운데 하나를 버리는 순간 진실 전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가장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을 찾던 청즈가 끝내 찾아 헤맨 것은 자신의 목소리였고, 엄마에게 닿을 언어였으며,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었다.

“이 세상엔 애초에 장애인 병은 없었다. 장애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시선으로 나 자신을 대하지 않는 것,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사실이다.”

이 문장은 장애에 대한 선언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겠다는 다짐이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죠?>(작 천쓰안陳恩安·연출 강보름)가 끝내 도착하는 곳은 바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삶, 존재를 결핍이나 결함이 아닌 하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이다.

복지국가 역시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을 더 도울 것인지에 앞서, 누구를 처음부터 사회의 일부로 상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상되지 않는 존재는 쉽게 제도 밖에 남겨진다. 인식의 경계는 제도의 경계가 되고, 제도의 경계는 다시 삶의 경계가 된다. 복지국가는 몇 개의 시설을 더 짓는 일보다 먼저, 누구를 여기에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지의 문제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수형이다. 경험과 조건, 욕망과 상처가 교차하며 짜인 한 장의 직물에 가깝다. 한 사람 안에 여러 목소리와 상처, 희망과 침묵이 엉킨 채 살아간다. 복지국가란 그 복수성을 지위버리지 않는 사회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수혜자이자 현재의 당사자일 때,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가 된다.

누구를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볼 것인가. 누구의 삶을 사회의 현실 안에 포함할 것인가. 그 질문이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래도록 우리 곁에 있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 앞으로 천천히 나아간다.

# 지역 소멸 시대, 문화의 가치를 찾다

황훈정 공공의료 행정가

김천에 내려온 뒤 종종 듣는 질문이 있다.  
“문화생활은 좀 아쉽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오랫동안 서울 종로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터다. 점심시간이면 경복궁 돌담길을 산책하고, 퇴근길에는 서촌 골목을 기웃거리며 작은 전시를 관람하곤 했다. 마음만 먹으면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전을 찾거나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을 예매하는 일이 일상의 반경 안에 있었다. 반면 지방의 문화적 토양은 척박할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본 지역의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얼마 전 김천의 한 도서관에서 소설가 김애란 초청 강연이 열렸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를 인구 13만

의 지방 도시에서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새삼 신선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들로 가득 찬 강연장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 퇴직 후 뒤늦게 문학을 공부하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있었다. 서울이었다면 치열한 예약 경쟁 탓에 발을 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자리였다. 그날 객석의 열기를 지켜보며 문득 질문이 수면 위로 올랐다. 우리가 관성적으로 말하는 ‘지역의 문화적 소외’란 과연 무엇일까. 눈을 돌려보면 지역에도 의외로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공연과 전시, 밀도 높은 강연이 곳곳에서 열린다. 규모는 작을지언정 오히려 사람에 치이지 않는 미덕이 있다. 서울의 대형 전시장 속 인파 틈에서 쫓기듯 작품을 보는 것보다, 지역의 한적한 전시실에서 하나의 작품을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 때로는 더 풍요로운 내면의 확장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결국 문제는 ‘향유’의 기회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문화를 자생적으로 길러내는 ‘생산’에 있다. 지역문화가 안고 있는 가장 깊은 고민의 지점도 바로 여기에 위치한다. 재능 있는 청년 예술가들은 결국 서울로 향한다. 미술·음악·문학 등 장르를 불문하고 구조적 이탈이 반복된다. 흔히 이를 경제적 인프라의 차이로만 설명하곤 하지만,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다.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다. 함께 치열하게 토론할 동료, 자신을 자극할 건강한 경쟁자,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진지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줄 관객을 갈망한다. 예술은 고립된 개인 안에서 홀로 성장할 수 없기에, 창작자는 더 넓고 역동적인 생태계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  
더욱 빠아픈 수수께끼는 지역이 이들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다소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역 문화예술계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이 존재한다. 토착 예술인의 오랜 헌신과 노력이 오늘날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졌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단단한 기반이 새로운 주체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지역성 수호’라는 명분 아래 익숙한 이들과 결속하고, 비슷한 얼굴들이 관습적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시도는 거리를 둔 채 조심스럽게 관망한다. 외지에서 온 예술가가 지역에 정착하려 해도 은연중에 밀려오는 배타적인 거리감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 소멸은 단순히 수치상의 인구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자극과 사람이 유입되지 않는 ‘정서적 고립’의 문제에 가깝다. 문화예술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다. 낮은 이들이 경계를 넘어 들어오고, 이질적인 생각이 부딪치며, 새로운 실험이 허용될 때 비로소 내적인 생명력을 얻는다. 변화 대신 익숙함 안에서의 안주를 선택하는 순간, 문화는 활력을 잃고 서서히 노쇠해져간다.  
이 지점에서 나는 다시 종로를 떠올린다. 많은 이들이 종로가 문화의 중심지가 된 비결을 역사성에서 찾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종로의 진짜 힘은 늘 새로운 존재가 모여들고 섞이는 ‘개방성’에 있다. 검재 정선부터 이상·고희동·김환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공간의 예술가들이 종로라는 무대 위에서 교차하고 스쳐 지나간다. 가장 오래된 동네였기에, 역설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유연했던 셈이다. 문화는 보존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다. 이제 지역의 문화 정책은 단순히 축제의 개수나 예산 규모를 과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국적으로 주말마다 수많은 축제가 소모적으로 열리지만, 축제의 불꽃이 꺼진 뒤 그 자리에 무엇이 축적되는지 묻는 대답은 요원하다. 지금 지역에 절실한 것은 휘발되는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사람’이다. 예술가 한 명이 정착하고, 작은 대안공간이 문을 열며, 지역 도서관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책을 읽고 공동체의 서사를 토론하는 일상적인 문화가 지속되는 것.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본질적인 동력이다.  
김애란 작가의 강연이 남긴 잔상이 오래도록 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연사보다 객석을 채운 시민의 눈빛이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다. 작가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질문을 누에고치처럼 자아내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여운을 나누느라 자리를 뜨지 못하던 사람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지역 문화의 진짜 가능성을 보았다.  
문화예술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매개하는 일이다. 지역 소멸의 시대, 문화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메가 이벤트나 건축과 같은 거대한 하드웨어에 있지 않다. 파편화된 개인을 연결하고, 소멸해가는 지역의 기억을 복원하며, 머무르고 싶은 미래를 함께 상상하게 만드는 연대의 힘에 있다.  
어쩌면 지역의 미래는 수천억 원짜리 개발 사업이 아니라, 오늘 밤 동네 작은도서관의 켜진 불빛 아래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역은 생각보다 가난하지 않다. 다만 그 문화적 씨앗이 대지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건강한 토양과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목직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이다.

# 서울의 철도, 동아시아 메가시티의 초상

## Seoul's Railways: A Portrait of the East Asian Megacity

전현우 이동철학자  
Jeon Hyun-woo Mobility Philosopher

많은 피식민 국가처럼, 한국에서도 철도는 식민주의의 첨병이었다. 대한 제국의 독자적 철도 부설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핵심 노선망은 일본 제국주의가 건설해 한국을 교량처럼 활용하기 위해 운영한 노선들이기 때문이다. 철도는 식민 지배의 핵이자 실절이었다. 서울에서도 올해로 딱 100년 된 서울역, 한강철교를 구성하는 다리 4개 가운데 3개가 일본 식민주의의 작품이다.

게다가 한국의 고도성장은 고속도로와 함께 이뤄졌다. 평범한 눈발이던 서울의 동남부를 새로운 도심 강남으로 만든 마중물은 경부고속도로(1970년 개통)였다. 이 길을 시작으로 한 세대 만에 한국의 고속도로는 철도보다 더 길어졌고, 2026년 지금도 연장이 20퍼센트 이상 길다. 다른 자동차 강국에서도 없는 일이다.

그동안 수도권과 한국 전체의 철도는 답보 상태였다. 전국 철도 영업거리 3천 킬로미터를 넘긴 1961년 이래, 4천 킬로미터가 넘을 때까지 61년이 걸렸고, 수도권 광역철도도 1974년 이래 52년이 되도록 아직 1천 킬로미터가 안 됐다. 이 틈을 메운 것이 바로 서울시가 건설한 도시철도였다. 1~4호선으로 이뤄진 1기 노선망은 서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고도성장기인 1974~1985년, 5~8호선으로 이뤄진 2기 노선망은 한국이 중진국에 진입하고 서울 인구가 정체기에 접어든 1990년대에 건설됐다. 21세기에는 9호선과 경전철로 이뤄진 3기 노선망도 덧붙었다. 꾸준한 투자가 집중된 덕에, 서울 도시철도는 도시고속도로보다 두 배 가까이 길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동네마다 서면서 도시 곳곳을 균등하게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서울과 위성 도시를 잇는 광역망 기능, 그리고 서울과 전국의 거점 도시를 빠르게 잇는 전국망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하지만 고속도로 시대, 자동차와의 경쟁이 격화된 이후에는 광역망과 전국망은 장기간 적자가 불가피했다. 국가가 아니면

Like many formerly colonized countries, railways in Korea were the spearhead of colonialism. Every attempt by the Korean Empire to build its own railways failed, and the core rail network was ultimately constructed under Japanese imperialism to use Korea as a strategic bridge to the continent. Railways were both the centerpiece and the practical instrument of colonial rule. Even in Seoul today, three of the four bridges that make up the Hangang Railway Bridge, as well as Seoul Station—which marks its 100th anniversary this year—are products of Japanese colonialism.

Moreover,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was achieved alongside the expansion of expressways. The catalyst that transformed the southeastern farmlands of Seoul into the new urban center of Gangnam was the Gyeongbu Expressway, which opened in 1970. Beginning with that road, Korea's expressway network surpassed the railway network in length within a single generation and, even now in 2026, remains more than 20 percent longer. This is a phenomenon unseen even among other major automobile-oriented countries.

Meanwhile, railway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cross Korea remained largely stagnant. After surpassing 3,000 kilometers of national operating track in 1961, it took another 61 years to exceed 4,000 kilometers. The metropolitan commuter rail network has yet to reach 1,000 kilometers, even 52 years after its launch in 1974. The gap was filled by the urban rail system buil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first-generation network, consisting of Lines 1 through 4, was built between 1974 and 1985 during Seoul's explosive growth period. The second-generation network, consisting of Lines 5 through 8, was constructed in the 1990s as Korea entered middle-income status

이런 망을 만들 수 없음에도, 20세기 후반 서울과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국가는 철도를 포기했다. 덕분에 서울의 광역·전국망 철도는 아직도 도시철도보다 아쉬운 수준이다.

가령 서울에서 전국 대부분으로 가는 열차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서울역에서 발착했다. 21세기 들어 고속열차가 등장할 때까지 그랬다. 지금도 서울역의 지위는 대체 불가능하다. 다른 착발 역의 규모를 모두 합쳐도 서울역보다 작다. 게다가 1971년 경춘선 성동역(현 제기동역 인근 소재)이 없어진 것처럼, 귀중한 도심 철도를 포기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광역 철도망도 아쉬운 수준이어서, 서울에서 반경 20~30킬로미터 거리에 건설돼 도심까지 급행열차가 필요했던 1기 신도시에서도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모든 역에 정차하는 열차만 운행했다. 북복선은커녕 대피선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메가시티와 대조하면 이 약점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 개발의 역사가 오래된 메가시티와 비교할 때, 서울의 전국망 열차 착발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서울역(승강장 15개, 관통식 3복선)만 한 역이 런던에는 11개, 파리에 7개, 모스크바에는 9개 있다. 서울보다 늦게 망을 확장하기 시작한 중국 메가시티의 경우 동서남북 방향마다 역을 마련하고, 이마다 승강장과 열차를 보낼 수 있는 선로인 본선의 양이 서울역의 2배에 가까운 도시들이 많다. 한편 도쿄나 런던과 대조하면 광역철도망의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도쿄는 서울(2019년 기준 18개)의 2배인 37개 복선이, 런던은 3배에 달하는 53개 복선이 서울과 비슷한 범위의 경계선을 통과해 외곽 지역과 도심부를 잇고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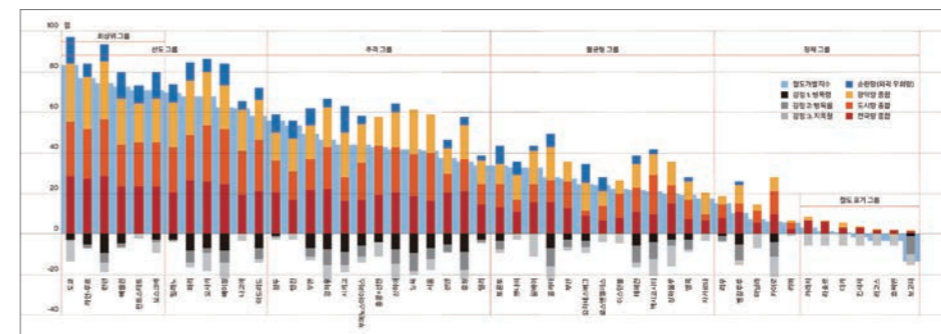
나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서울은 물론 전 세계에 약 50개 존재하는 메가시티 철도망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 체계를 만들어왔다.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를 '철도'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50명으로 보고, 각자의 조건에서 도시, 광역, 전국을 잇는 철도망을 얼마만큼

and Seoul's population growth began to plateau. In the 21st century, a third-generation network, centered on Line 9 and the light rail lines, was added. Thanks to sustained investment, Seoul's urban rail network is now nearly twice as long as its urban expressway network.

However, because urban rail lines stop frequently to connect neighborhoods evenly throughout the city, they are far too slow to effectively serve either the metropolitan network linking Seoul with its satellite cities or the national network connecting Seoul with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Yet in the era of expressways, as competition with automobiles intensified, metropolitan and national rail networks became structurally prone to long-term deficits. Although only the state could build such networks, the government largely abandoned railway development during the high-growth decades of the late 20th century. Consequently, Seoul's metropolitan and national rail systems remain less developed than its urban rail network.

For example, trains traveling between Seoul and most parts of the country departed from and arrived at Seoul Station for nearly a century. This remained true until the introduction of high-speed rail in the 21st century. Even today, Seoul Station's status is irreplaceable. The combined scale of all other terminal stations is smaller than that of Seoul Station alone. Furthermore, valuable inner-city rail infrastructure was sometimes sacrificed, as seen when Seongdong Station (located near today's Jegi-dong) on the Gyeongchun Line was abolished in 1971. The metropolitan rail network also fell short of expectations. Even in the first-generation new towns, built 20 to 30 kilometers from central Seoul and requiring express services to the city center, only all-stop trains were operated, identical to the urban rail lines. This was because neither quadruple-tracks nor even adequate passing tracks could be secured.

These shortcomings become even more apparent when contrasted with other megacities. Compared with older megacities that have longer development histories, Seoul's capacity to handle national rail services is significantly lower. London has 11 stations comparable to Seoul Station (with its 15 platforms and 3 double-track through lines), Paris



서울·부산을 포함한 세계 50개 도시를 비교한 '메가시티 철도개발지수' 자세한 결괏값은 저자의 책 『거대도시 서울 철도』(2020) 76~77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s 7, and Moscow has 9. In Chinese megacities, many of which began expanding their rail networks later than Seoul, major stations have been established in each cardinal direction, and many possess nearly twice the number of platforms and mainline tracks available at Seoul Station. The contrast is equally striking in metropolitan rail networks. Tokyo has 37 double-track railways crossing its boundary and connecting the suburbs with the city center, roughly twice Seoul's 18 as of 2019. London has 53 such corridors, nearly three times Seoul's number.

To better understand these differences, I collected relevant data and developed an index system to enable comparison among the rail networks of approximately 50 megacities worldwide, including Seoul. Think of it as treating each city as one of 50 students taking a course called "Railways," and evaluating the scale and structure of their networks based on the question of how well, and with what quality, they have built rail connections at urban, metropolitan, and national levels, given their respective conditions. In this "Megacity Railway Development Index," as of 2019, Seoul ranked roughly 20th. Metaphorically speaking, that is equivalent to a B-minus grade.

Ahead of Seoul are the developed nations that have been building railways since the early 19th century, namely, the megacities of Europe and Japan. Surrounding Seoul are the megacitie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hina's rail systems are expanding at an astonishing pace, while many American megacities struggle to modernize railway infrastructure that is more than a century old. Behind Seoul stand the giant cities of India, South America, and Africa. Even at this very moment, enormous populations are pouring into these cities, but the means of mobility required for these populations remain insufficient. While many cities continue to expand their rail networks incrementally, many others effectively abandoned theirs, leaving them unused and giving them an F grade.

Looking at the landscapes of world megacities through the lens of railways allows us to roughly sketch not only Seoul's past and present, but also its future. Having acquired railways since the final year of the 19th century and having secured a relatively generous standard-gauge track for connections with continental networks, Seoul was in a less favorable position than the imperial centers, China, or India, where railway networks were established from the early to mid-19th century. However, it was in a better position than colonies in Africa and Southeast Asia,

아프리카의 거대 도시가 늘어서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고 있지만, 이 인구에 필요한 이동 수단은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철도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선망을 쌓아 가고 있는 도시도 많지만, 사실상 철도망이 방기돼 사용되지 않는 상태라 F 학점을 줄 수밖에 없는 도시도 많다.

이렇게 철도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 메가시티의 풍경을 살펴보면, 서울의 어제와 오늘은 물론 미래까지 대략 그려볼 수 있다. 19세기의 마지막 해부터 철도를 얻고, 대륙 철도와의 연결을 위해 상대적으로 넉넉한 표준궤 철도를 얻은 서울은, 19세기 초중반부터 철도망이 구축된 제국주의 중심부나 중국·인도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20세기 들어 망을 얻고 아프리카·동남아시아처럼 망이 분절된 데다싼 가격에 빠르게 건설한 식민지보다는 상황이 좋았다. 또 서울에 밀집된 경제력 덕분에 전국적으로는 철도가 방기된 고도성장기에도 도시와 광역철도 투자를 꾸준히 진행했기에 시민이 철도를 없어서는 안 될 수단으로 생각할 기반을 만들었다.

이들 철도망 위에서 서울의 21세기는 꽃을 피우고 있다. 수백 년간 사대문 내부의 과밀한 단핵 구조를 유지하던 서울은, 2호선이 열어 준 공간 속에서 다핵 도시로 바뀌었다. 인구와 산업의 이동 같은 무거운 주제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실험도 철도를 따라 가능했다. 청년층의 대부분이 자동차 없는 도시인 만큼, 서울에서 이런 실험을 위한 만남의 공간은 철도 주변에 생겼다. 1990년대 X세대 문화는 2호선을 따라 신촌과 이대를 빛나게 했다. 2000년대 밀레니얼 문화는 2000년 개통된 6호선이 더해져 홍대~합정~상수 구간에서 도드라졌다. 2020년대, MZ세대의 문화적 에너지는 2호선에 2013년 더해진 분당선을 타고 성수동에 모인다. 다음 세대의 문화적 에너지 역시 분명 철도망을 따라 흘러 서울 어딘가에 모일 것이다.

모든 도시는 각자의 약점과 강점을 가진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노거수가 많은 용이와 비대칭을 품고 있듯, 서울의 역사와 함께 자라온 철도망 역시 성장 과정에서 겪은 많은 일을 용이처럼 품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첫 사반세기까지 역사적 한계, 그리고 사양 산업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꾸준히 투자를 쌓아 나가며, 자동차의 강력한 지배력 속에서도 나름의 니치를 차지하고, 수천만 명의 통행이라는 거대한 압력 속에 도시가 질식하지 않도록 해온 서울의 철도. 이렇게 누적된 철도망 덕에 서울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교통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었다. 기후 문제와 같이 우리의 도시가 처한 다중위기 앞에서도, 계속해서 서울을 아끼고 지킬 시민이 나올 수 있다면, 그 기반에는 바로 서울의 철도가 있을 것이다.

which acquired networks in the 20th century that were fragmented and built quickly at low cost. Furthermore, thanks to the economic density concentrated in Seoul, consistent investment in urban and metropolitan rail proceeded even during the nationwide rapid growth era, when railways were largely abandoned, laying the groundwork for citizens to regard the railway as an indispensable means of mobility.

Upon these rail networks, Seoul's 21st century is flourishing. For centuries, the city maintained an overcrowded monocentric structure concentrated within the historic city walls. The opening of Line 2 created the space for Seoul to evolve into a polycentric city. Railways enabled not only major shifts in population and industry but also experiments in lifestyle and culture. Since much of the younger generation lives without cars, the spaces where these cultural experiments took place naturally emerged around railway stations. In the 1990s, Generation X culture made the Sinchon and Ewha areas shine along Line 2. In the 2000s, Millennial culture found its center in the Hongdae, Hapjeong, and Sangsu area, reinforced by the opening of Line 6 in 2000. In the 2020s, the cultural energy of the MZ generation gathers in Seongsu-dong, riding the Bundang Line, which connected with Line 2 in 2013. The cultural energy of the next generation will likewise flow along the rail network and gather somewhere else in Seoul.

Every city possesse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Just as an ancient, long-standing tree bears many knots and asymmetries accumulated over time, Seoul's railway network has grown alongside the city's history and bears the marks of the many experiences accumulated throughout its growth, much like the knots of an ancient tree. From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rough the first quarter of the 21st century, despite historical limitations and its reputation as a declining industry, Seoul's railway has steadily accumulated investment. It carved out its own niche amid the powerful dominance of the automobile and prevented the city from suffocating under the immense pressure of tens of millions of daily commutes. Thanks to this accumulated rail network, Seoul has become the only city in Korea to achieve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the face of the polycrisis confronting our cities, including climate change, if citizens who continue to cherish and protect Seoul are to emerge, Seoul's railway will be at the very foundation of that effort.

의 수준과 품질로 구축해냈느냐는 질문 아래 망의 규모와 구조를 평가했다. 이 '메가시티 철도개발지수'에서 2019년 기준, 서울은 대략 20등이었다. 비유하자면 B- 학점 정도인 셈이다.

서울 앞에는 19세기 초반부터 철도를 건설해온 선진국, 즉 유럽과 일본의 메가시티가 있다. 서울의 앞뒤에는 중국과 미국의 메가시티가 있다. 하지만 중국 메가시티의 철도망은 무서운 기세로 확장되고 있고, 미국의 메가시티 철도망은 100년 이상 묵은 오래된 인프라를 현대화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어서 서울보다 뒤에는 인도·남미·

#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서울문화재단, 맞잡은 손으로 문화 생태계를 감쌀 때

박채림 [문화+서울] 에디터 | 사진 Studio Kenn

발달장애 예술가에게 창작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 세상과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서울문화재단과 올해로 3년째 함께하고 있는 '우리시각'은 예술가의 성장과 사회 참여, 나아가 자립의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 사무국장과 만나 작품 너머 예술가의 지속 가능한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회공헌 사업과 이를 관통하는 철학이 궁금합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장애인 자립 및 일자리 창출, 자립준비청년 지원, 문화예술 후원, 지역사회 상생 등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다양하지만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철학은 분명합니다.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혜자가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립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검토할 때도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지원이 당장의 도움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변화가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따라서 단기 후원보다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되는지, 사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결국 사회공헌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며, 그 과정에서 수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간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문화예술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문화예술이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회와 연결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예술가에게 창작 활동은 예술적 표현을 넘어 세상과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전시실을 넘어 관객과 만나고, 나아가 판매까지 이어질 때 예술가는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지원을 전시나 공연 같은 결과로 접근하기보다, 예술을 매개로 개인과 사회, 지역의 구조에 변화를 더하는 인프라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발달장애 미술가 지원사업 '우리시각'이 올해로 3년째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소회는 어떠한가요.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우리시각'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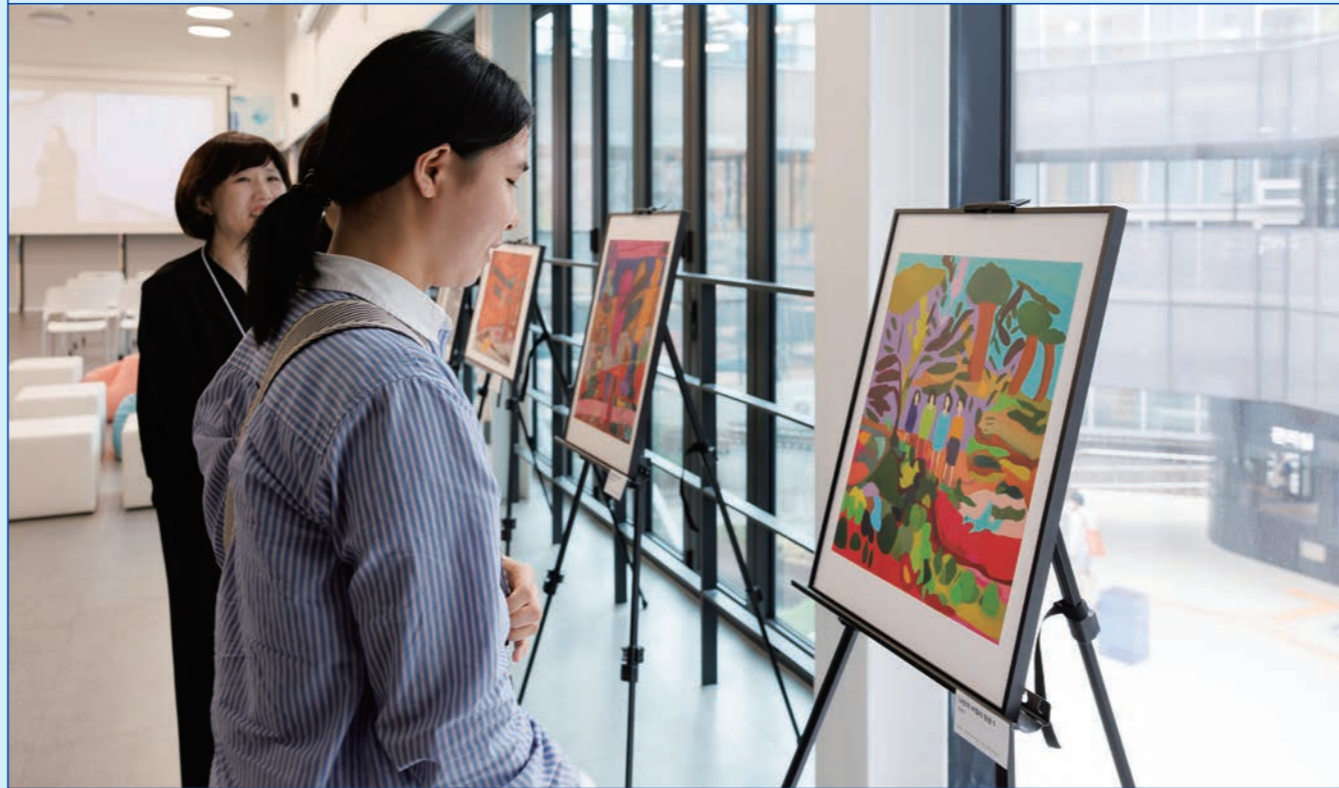


이유는 사업의 방향이 재단의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단은 장애인 지원이 보호와 지원을 넘어 자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시각'은 발달장애 미술가를 발굴하고 교육과 멘토링·전시를 거쳐 전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으로 사회와 만나고 작가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전문 인큐베이팅 시스템 역시 재단이 추구하는 자립 지원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3년간 사업을 이어오며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전문 작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재단이 '우리시각'을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가와 그 가족들을 만난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 온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술가 한 사람의 성장이 개인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시각'은 창작 지원과 역량 강화, 네트워킹까지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발달장애 예술가에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시각'처럼 창작 지원으로 시작해 함께하는 이들과 네트워킹까지 제공하는 방식이야말로 발달장애 예술가의 재능을 하나의 직업이자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으로 연결하는 유일하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 예술가는 뛰어난 잠재력이 있지만 교육과 정보, 시장 접근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 지원금만으로는 전문 작가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과 멘토링, 전시와 교류 기회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이 장애인의 작품이 아닌 예술가의 작품으로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우리시각'은 이러한 성장을 돕고, 예술가가 전문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기에 더욱 의미가 큼니다.

**기업의 후원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합쳐져 만들어진 '우**



**리시각' 같은 협력 모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문화예술 분야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예술가 지원처럼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재단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문화재단은 오랜 시간 축적해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가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이 가진 자원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만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을 함께하며 현장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높은 소명 의식도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의 역량이 더해지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자원과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하면 발달장애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도시와 지역 차원의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장애예술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동 기회 확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각'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는 포용적인 문화 생태계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협력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만들어 갈 변화와 비전을 소개해주세요.**

우리 재단은 문화예술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해 취약계층과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를 수립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인재 발굴과 교육, 창작, 사회 참여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립과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장

기적으로는 금융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모델로서 발달장애 예술가와 미래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 민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그리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미래세대, '우리히어로'(군인·경찰·소방),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재단은 금융의 힘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의 희망이 되고, 그 변화가 다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크게 드러나는 이름이기보다 어려운 순간마다 곁을 지키며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흙 선을 반복해 형태를 만드는 도예 작업을 하는 조혜영입니다.

다섯 살 때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입시 미술을 시작했지만, 정해진 방식 안에서 잘 그려야 한다는 과정이 저에게는 즐겁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만뒀습니다. 이후 성인이 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생각했을 때 결국 미술이 떠올랐고, 그중에서도 공예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손을 움직인 만큼 결과가 남고, 재료와 몸이 직접 부딪히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제게는 공예가 가장 진실한 표현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예술가보다는 노동자에 더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영감이 찾아와 머릿속에 머무르던 이미지를 단번에 구현해 내기보다는, 매일 정해진 물리적 조건 속에서 신체를 움직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작업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 작업의 본질은 순간적인 착상보다 반복적이고 정직한 육체 노동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작업을 할 때 제 몸은 재료와 공정에 깊이 구속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이기보다, 재료의 상태와 손의 감각, 시간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몸을 조율하는 노동자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노동을 반복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지난한 질문 끝에 마주한 답은 결국 '나'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결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정직한 과정이었습니다. 선을 긋는 최소한의 행위 안에는 제 시간과 움직임, 버티고 반복하는 몸의 감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일 자체가 결국 저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의 시간이 저를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되고, 그 끝에 나온 창작물에 제 존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이것이 나의 예술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 조혜영

공예/도예

@h\_0\_cera

2026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예술가

액체와 고체의 중간쯤에 있는, 유동적인 흙인 '슬립'으로 작업합니다. 슬립은 처음부터 형태를 보이지 않고, 손에 담으면 흘러내리거나 쉽게 퍼져버리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흙을 비닐 주머니 안에 넣고 끝을 잘라, 손아귀에 쥔 채 압력을 주며 흙의 선을 밀어냅니다. 제게 선은 움직임의 흔적이며, 시간이 쌓인 결과이고, 생명이 뻗어 나가는 방향입니다. 자연 속의 물결, 나이테, 잎맥, 뿌리처럼 선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선의 성질을 슬립이라는 유동적인 흙을 통해 도자 안에 물질화하고자 합니다. 손에서 나온 선은 하나하나 반복되고 축적되며 결을 만들고, 그 결은 다시 하나의 형태로 확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태는 흙의 상태와 손의 감각, 흡수되는 속도와 쌓이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작업은 재료와 손의 리듬이 조용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제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슬립이 흐르고, 손아귀에 쥐어지고, 손끝에서 선으로 밀려나오고, 그 선들이 모여 형태가 되는 순간들이 모두 작품의 일부입니다. 결국 제 작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흙이라는 물질 안에 머물게 하고, 순간의 움직임을 도자라는 지속적인 형상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연약한 선은 반복을 통해 결이 되고, 결은 형태가 되며, 그 안에서 선의 생명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흔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에서 영감받습니다. 움직임과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수면 위를 지나가며 남기는 물결이나 공기 중으로 피어오르는 연기의 상승과 확산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테와 잎맥처럼 시간이 쌓이고 생명이 뻗어 나가는 구조에서도 비슷한 감각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자연의 흔적에서 움직임과 시간,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는 생명성을 발견하고, 이를 도자의 선과 형태로 옮기고자 합니다.

팀 잉골드 Tim Ingold의 저서 『만들기 Making: Anthropology, Archaeology, Art and



Architecture』를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를 '머리 머릿속에 완성된

형태form를 정해두고 재료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재료와 인간, 그리고 환경이 서로 능동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형태를 '기르고 생성해나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책이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온 이유는 제 작업의 본질과 정확히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흙이라는 재료 위에 균림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흙이 가진 유동적인 생명력의 흐름에 동참하고 그것을 물질화하는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창작물이 아닌 창작하는 그 과정이 나를 표현한다"는 제 예술적 자각에 깊은 철학적 당위성을 부여해 준

《결이 피어난 시간》, 2026, 도자, 안료, 42×17×22cm

작업이기에,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복기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 책을 펴고 싶습니다.

작업을 통해 저라는 사람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느낍니다. 선 하나를 반복해서 쌓아가는 일은 걸으로는 정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의 과정은 저에게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작업의 과정을 즐기며 지속해나가고 싶습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영상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신정균입니다. 이제껏 당연하게 받아들인 일상의 규칙과 제도적 매뉴얼이 개인에게 스며들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적해왔습니다. 실제하는 장소나 사건에 가상의 내러티브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현실의 이면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실 미술대학을 다니던 학부 시절에는 작가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졸업이 다가올 무렵, 막연히 취업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방송국의 입사 시험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디오 아트 전시의 아티스트 토크를 보러 갔는데 전문 촬영팀이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누군가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삶과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차이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비록 불안정하더라도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쪽을 택하고 싶다는 바람이 계기가 돼 창작의 길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특별하거나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항상 주시합니다. 평소 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물이나 공공장소에 붙은 안내문의 문구처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나치는 풍경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어디선가 흘러보낸 것들을 붙잡아 건져 올리려는 시도가 예술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견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은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인 기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 허구의 설정을 섞어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지 유추해보도록 만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에 미래를 예측하려는 믿음과 현재를 보존하려는 대응 방식을 다룬 개인전 《예언과 시나리오》를 아마도예술공간에서 선보였습니다. 근래에는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간 본연의 역할은 무엇인지

# 신정균

시각예술/영상·설치

@shin.jungkyun

2026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질문하기 위해 수필 속기사와 윗놀이학회장님을 인터뷰하고 기록자와 해석자로서의 교차점을 만들어낸 작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불안을 어떻게 시각화할지 고민하며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평소에 틈틈이 기록해둔 메모와 자료가 모여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다 본 짧은 기사나 게시물, 거리에서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으로부터 작업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의 작품을 보거나 전시를 관람할 때 직접적인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타인의 예술적 접근을 마주하는 순간 잠재된 관심사와 교차하면서 이를 나의 질문으로 어떻게 치환할 수 있을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의 속도로 작품을 보고 싶어서 주로 혼자 전시를 보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카세가와 겐페이의 『초예술 토머스』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오르내릴 수 없는 계단이나 허공으로 연결된 문처럼 주변에 존재하지만 아무런 기능도 없이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다니는 기록입니다. 쓸모를 잃어버린 사물과 버려진 잔해를 눈여겨보는 저로서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용한 발견을 ‘초예술’이라 명명하며 그 가치를 전복하는데, 이는 일상의 틈새를 탐색해온 제 작업과도 길을 공유합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체계가 어긋나는 순간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본 책입니다.

저는 작업을 통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나 결론을 내리는 대신, 현실 상황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댄스나 특정 장소의 조형물처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를 기념비적 조각으로 바라보는 신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재난 대비라는 명목 아래 설계된 공간 구조와 매뉴얼을 수집하고, 그 뒤에 가려진 집단 불안의 실체를 드러내보려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곳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감각할 수 있도록 일종의 통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Ordinary World》(2024)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전시 전경

# 복지가 아닌 삶의 일부로서 문화

## 금천문화재단 서영철 대표이사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협력관

인터뷰가 예정된 금천뮤지컬센터로 가는 길에는 금천이라는 도시의 결이 먼저 다가왔다. 서울 서남쪽, 오래된 생활권의 기억과 첨단 산업의 속도가 한 공간에 머무는 곳. 가산동 G밸리에는 청년과 직장인이 드나들고, 독산동과 시흥동에는 오래 동네를 지켜온 주민들의 생활이 단단하게 자리잡고 있다. 금천은 거대한 문화 랜드마크의 도시라기보다, 골목과 생활문화공간 사이에서 문화가 자라는 도시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런 금천을 두고 “생활의 힘이 문화로 이어지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그 말에는 금천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과 문화 예술 행정가로서 그가 지나는 시간의 흔적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을 공부했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문화예술정책 실·공연예술과 등 여러 부서를 거쳤다. 한때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예술지원사업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살폈고, 예술가와 지원 제도, 창작 현장과 정책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체득했다.

그에게 예술지원은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었다. 지원 구조가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만들고, 예술가의 활동이 다시 관객과 사회를 만나 하나의 생태계로 확장되는 과정이다. 프랑스에서 공부하며 파리 주 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축제와 여러 문화 행사를 직접 만든 경험도 그의 문화관을 넓혔다. 한국어 강좌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문화원 앞에 줄을 섰고, 한국 영화제에는 관객이 몰렸다. 현지의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문화는 큰 이벤트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작은 접점이 오래 쌓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연결되며, 생활 속에서 즐기는 기반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오늘날 ‘K-컬처’의 힘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지역민들한테 문화예술이 생활화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그 네트워킹이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 경험은 지금 금천문화재단을 이끄는 그의 경영 철학으로 이어진다. 문화는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자주 접할 때 힘을 갖는다. 좋은 공연 하나, 훌륭한 전시 하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아이와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스며들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과 연결될 때 문화는 도시의 체질이 된다.

금천문화재단이 새롭게 세운 비전은 ‘모두의 삶이 예술로 피어나는 금천’이다. 서영철 대표는 이 비전을 설명하며 문화예술을 여전히 ‘복지’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지역 행정의 한계도 짚었다. 문화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문화예술이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여가 프로그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는 지역민의 기본적인 삶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다. 예술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자기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생활권 가까이에서 피어나는 문화

그가 보는 금천의 첫 번째 특징은 '공존'이다. 가산동 일대 G밸리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청년과 직장인, 유입 인구가 많고 도시의 리듬도 빠르다. 반면 독산동과 시흥동에는 오래전부터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이 많다. 이 두 얼굴은 금천의 문화 정책에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금천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시설이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이끄는 구조와는 다르다. 재단 본부, 금나래아트홀과 금나래갤러리, 어울샘, 독산생활문화센터 별마루, 만천명월예술인가는 서로 다른 생활권에 자리한다. 구립도서관 4개와 작은도서관 12개도 주민 생활권 곳곳에 흩어져 있다. 겉으로 보면 분산된 구조지만, 그는 이를 생활권 문화의 토대로 본다. 서영철 대표가 부임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도 금천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는 문화예술 사업을 만드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제작 공연 <환어>, 금천시흥행궁문화제, 가산디지털페스타, AI 뮤직 콘테스트 '지사운드삼공G-Sound30' 등이 있다. 금천의 과거를 담은 역사문화 자원은 <환어>와 금천시흥행궁문화제로,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첨단 산업 자원은 가산디지털페스타와 지사운드삼공으로 구체화됐다.

<환어>는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계기로 시흥행궁과 정조대왕 능행차를 소재로 기획한 공연이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인적 자원과 협력해 지역 기반 창작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가산디지털페스타와 지사운드삼공은 가산동 G밸리의 첨단 산업과 디지털 환경, 청년과 직장인의 생활권을 문화예술로 풀어낸 사업이다. 산업의 현재와 생활의 기억이 함께 있는 도시. 그가 말하는 금천의 문화적 정체성은 그 두 축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올해 금천문화재단이 가장 역점을 두는 일 가운데 하나는 지역 예술인 지원체계의 정비다. 재단은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예술인 지원사업을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묶었다. 신진 예술인에게는 첫 활동 기회와 지역 안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경력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완성도를 높이고 더 넓은 협업과 발표 기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는 이 사업이 5년, 10년 지속된다면 금천에서도 주목할 만한 예술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지속성'을 꼽았다. "문화예술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1~2년에 결과물이 딱 드러나게 아닙니다. 화초에 물을 주면서 기다리듯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가져가야 합니다."

### 공연장이 달린 사이,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다

인터뷰가 진행된 금천뮤지컬센터도 올해 재단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 공간은 본래 교육 특화 시설로 금천구청이 운영해왔지만, 뮤지컬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재단이 운영을 대행한다.

서영철 대표는 이 공간을 단순 대관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 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재정립하려 한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을 창·제작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예술교육을 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청소년이 뮤지컬을 배우고 만들고 무대에 서며 예술교육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금천구의 대표 공연장인 금나래아트홀은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그는 이 공사를 단순한 시설 보수로 보지 않았다. 2008년 개관한 금나래아트홀은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무대 기계 시스템을 교체하고 최신 무대장치들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사가 끝난 내년부턴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오페라·국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더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나래아트홀이 공사하는 동안을 공연 공간 확장의 기회로도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찾아가는 공연 브랜드 '금천라이브'와 올해 새롭게 선보인 '금천라이브 플러스'다. 금천라이브 플러스는 공연장을 벗어나 금천 곳곳을 무대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동시에 실내 공연은 금천뮤지컬센터 금천예술극장을 적극 활용한다. 공연장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무대가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시간이다.

올해 시작된 '꿈의 오케스트라 금천'도 재단이 중요하게 보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권유로 작은북을 연주한 경험을 떠올렸다. 내성적이던 아이는 친구들과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다. 그에게 악기 교육은 단순히 연주 기술을 배우는 일이 아니었다. 무대에 선다는 것, 다른 사람의 소리와 맞춰 본다는 것은 아이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고, 관계 형성의 경험을 제공한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나를 발견하고, 너를 발견하고, 결국 우리를 배우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악기를 연주하는 동시에 옆 친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고 맞추고 조화를 배운다. 그 과정이 곧 공동체를 배우는 일이다.

### 사랑방이 된 도서관과 예술인 공간

금천에는 어울샘, 만천명월예술인가, 독산생활문화센터 별마루처럼 주민과 예술인이 만나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는 좋은 문화공간의 조건을 "지역주민이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낮은 문턱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곳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민이 부담 없이 찾아오고, 이

웃과 만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역시 재단의 중요한 역할이다. 금천의 또 하나의 강점은 10분 거리 생활권 도서관 네트워크다. 재단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12개소가 주민 가까이에서 공공 문화공간이 돼주고 있다. 앞으로 금천의 도서관은 책을 중심에 두되, 공연·전시·이야기 모임·체험·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서영철 대표의 생각이다.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는 작은도서관이 한 달에 한 번 동네 사랑방처럼 열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경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는 금천문화재단이 구민에게 "내 삶 가까이 있는 재단"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민에게는 문화예술을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 지역 예술인에게는 함께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신뢰 받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이 올해 새롭게 준비하는 '금천미술벨트'도 같은 맥락에 있다. 금천예술공장,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만천명월예술인가, 금나래갤러리, 아트센터 예술의시간, 갤러리 범일운수종점 타이거원Tiger1 등 공공과 민간의 시각예술 거점이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금천미술벨트는 이 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사업이다. 산업단지와 G밸리, 오래된 주거지와 생활문화의 도시로 인식돼온 금천에 시각예술의 흐름이 더해지면, 금천은 산업과 예술, 기술과 감각, 생활권과 창작공간이 만나는 도시로 다시 읽힐 수 있다.

인터뷰를 마치며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본다. '모두의 삶이 예술로 피어나는 금천'. 금천문화재단이 하려는 일은 문화예술을 특별한 세계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동네, 아이들의 교실, 예술인의 작업실, 도서관의 낮은 책상, 야외 광장과 공연장, 갤러리와 축제 현장으로 문화의 길을 넓히는 일이다. 금천의 문화는 가산동의 빠른 출근길과 시흥동의 오래된 골목, 독산동의 생활문화공간과 아이들의 오케스트라 연습실 사이에서 조금씩 자란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금천문화재단은 묵묵히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감상을 넘어 경험하고 기억하도록

## 오예담 국립국악원 장악과 관객개발팀 마케터

박재림 [문화+서울] 에디터 | 사진 Studio Kenn

국립국악원 장악과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계시지요. 장악과는 국립국악원의 공연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공연 홍보와 관광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어요. 쉽게 말해 좋은 공연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공연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기획하며, 관객이 공연을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관광 마케팅은 공연 분야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국립국악원은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악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소개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서울관광재단 등과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외 트래블 마켓 등에 참가해 국립국악원의 공연과 콘텐츠를 알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관 마케터로서 국악 분야를 선택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대학교까지 거문고를 전공했습니다. 연주자의 길을 걸으며 무대에 서는 일도 좋아했지만, 문득 공연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연주를 넘어 국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객과 연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문화예술경영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국악을 선택했다기보다 결국 가장 익숙하고 좋아하는 분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말씀대로 국악은 여전히 일부 대중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장르입니다. 국악은 '전통음악'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폭넓은 매력을 가진 장르입니다. 제가 4년째 홍보를 맡고 있는 <토요명품> 공연만 봐도 처음 공연을 본 관객이 다음번에는 가족이나 친구·외국인 지인을 데리고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공연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종종 "국악 공연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국악은 한 번 접하면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국악원의 마케팅 방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악이 어렵고 낯설다는 인식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 자체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의 배경과 맥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출연진과 제작진 인터뷰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공연에 담긴 숨은 이야기와 전통문화의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연 관람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요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연 전후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통의상을 입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굿즈 역시 관객 경험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공연을 감상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공연을 경험하고 기억하며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대상 마케팅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2023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한 '코리아 유니크 베뉴 Korea Unique Venue'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여러 도시에서 국악을 알리는 쇼케이스를 진행했는데요. <토요명품>과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대표 레퍼토리를 공연장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선보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며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며 국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특히 K-콘텐츠를 접해본 해외 관객들은 'K-콘텐츠의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말씀해주는 경우가 많더군요.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 문화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이 느껴져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해외 관객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계시군요. 과거에는 전통예술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국악을 접했다면



최근에는 구체적인 궁금증으로 공연장을 찾는 관객이 많습니다. BTS 슈가의 <대취타>를 듣고 그 원형이 되는 음악을 찾아보다가 국악 공연을 보러 오는 분도 많고요. 소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퓨전국악이나 크로스오버처럼 다른 장르와 결합된 형태로 국악을 접하려는 흐름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전통 본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종묘제례악처럼 전통의 고유한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연에 관심을 보이는 분도 늘었습니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악 역시 전통 예술 장르를 넘어 한국 문화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업무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당장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

난 뒤 관객의 반응을 마주할 때면 이 일이 가진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저는 담당하는 공연이 있으면 가능한 한 객석에서 관객과 함께 공연을 보려고 하는 편인데요. 공연을 보기 전과 후의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 공연을 본 관객이 가족이나 친구를 데리고 다시 찾아오거나, 공연이 정말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도 큰 힘을 얻습니다.

국립국악원은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관객 이벤트와 굿즈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굿즈는 핀배지입니다. 공연의 주요 레퍼토리나 악기를 모티프로 제작했는데, 이를 모으기 위해 공연장을 꾸준히 찾은 관객도 있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요명품>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굿즈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국악과 전통예술은 굿즈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매우 풍부합니다. 악기와 의상·문양·악보 등 다양한 요소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전통무용 의상을 활용한 체형 프로그램이나 전통 춤사위를 형상화한 생활소품 등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연과 전통문화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상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려 합니다.

국립국악원 공연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들려주세요. 매주 토요일 열리는 국립국악원 <토요명품>은 정악과 민속악·무용 등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대표 상설 공연입니다. 주마다 프로그램이 달라 공연마다 새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는데요. 국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기며 자신만의 흥미로운 장르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입문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마케터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마케터는 단순히 공연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의 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공연을 보러 오기 전에는 기대감을 만들고, 공연을 보는 순간에는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돕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전체를 고민합니다. 무엇보다 공연을 계기로 전통 문화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국악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면서도 전통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공연 한 편이 누군가에게 전통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악과 관객을 연결하는 마케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 예술로 갈등하는 세계의 축소판,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변지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진 제공 La Biennale di Venezia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프리뷰 첫날인 5월 6일, 높은 관심은 비엔날레 전시장 입구의 공원 너머 걸어서 5분 거리의 페리 선착장까지 길게 이어졌다. 전 세계에서 모인 미술계 인사와 언론인이 비가 오는 오전 한 시간을 넘게 대기하며 베니스 비엔날레 입장을 기다렸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이면 이곳은 이처럼 세계의 예술인이 모이는 글로벌 예술의 집합소가 된다.

줄 서 있는 한 시간이 기다림으로 지루하지 않다. 문화예술 전문 잡지사들은 특별 발간물을 제작해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비엔날레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미디어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바쁘다. 두어 개를 받아 비교해가며 미리 비엔날레를 탐색하다보면 누군가 어깨를 치며 홍보물을 나눠준다. “평화를 위한 예술”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예술 캠페인을 소개한다. 뒤쪽으로는 비엔날레 국가관 폐지 시위를 하는 이들이 설치한 플래카드와 구조물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에서 시위자는 확성기를 들고 국가관 폐지를 외친다. 그 뒤로 스테파노 카골Stefano Cagol이 기후 변화를 주제로 삼아 얼음을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 <The Ice Monolith-After Land>가 한창이다.

겨우 입장해 길을 따라 자리하고 있는 국가관 앞을 지나간다. 한국관을 향해 가던 길에 러시아관 앞에서 발길이 멈춘다. 눈앞이 인산인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기웃거리는 사이, 분홍색 연기가 피어오른다. 예술 그룹 푸시

→ 한국관 ‘해방공간: 요새와 동지’ 전시 전경 ©Luca Zambelli Bais

↓ 러시아관 앞에선 푸시 라이엇의 시위가 벌어졌다 ©변지혜



라이엇Pussy Riot의 시위 퍼포먼스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관이 2024년에는 국가관 전시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미 러시아관 앞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이탈리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예술인은 이 시위를 보며 함께 외치거나 손뼉을 치며 호응하고 있었다. 정신없는 틈을 타 러시아관을 들어가보니 꽃으로 가득한 전시장에는 여유가 가득하다. 바깥 상황과는 정반대로 DJ가 음악을 틀고, 2층에선 샴페인과 음료를 나눠주고 있다. 불과 며칠간 열리고 문을 닫기로 한 러시아관의 전시는 바깥 현실과는 또 다른 세계였다.

시위가 잦아들 때쯤 빠르게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장을 탐색했다. ‘자르디니Giardini’와 ‘아르세날레Arsenale’로 구역이 나뉜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장은 각국을 대표하는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잡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자국의 전시와 작가가 주목받을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몇몇 전시장은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또는 퍼포먼스가 진행

되는 전시 특성에 따라 시간과 출입 인원을 조정해 입장할 수 있게 해두었다. 오스트리아관의 경우 문을 담은 채 전시장 앞에서 플로렌티나 홀칭거Florentina Holzinger의 <Seaworld Venice> 퍼포먼스가 한창이었다. 거대한 크레인이 쇠덩어리 종을 끌어올리고, 거꾸로 매달린 나체 여성이 종의 추가돼 비엔날레 장을 울린다. 찰나의 퍼포먼스를 놓칠세라 우산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의 카메라 세례가 쏟아진다.

자르디니 전시장을 얼른 훑고 아르세날레 구역으로 이동하는 길, 골목 골목에 베니스 비엔날레 메인 전시 구역에 국가관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한정된 베니스 비엔날레 자르디니 공원과 아르세날레는 유료 티켓이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식 전시장 밖에 마련된 국가관은 무료로 운영된다. 각각의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나눠주기에 바쁘다. 자르디니와 아르세날레에 입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전시가 넘쳐나는 베네치아를 찾은 이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애를 써야 하니 말이다.

그런 와중인 5월 8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벨기에·스페인·키프로스·에콰도르·이집트·한국·일본 등 27개 국가가 파업을 결정했고, 국가관 문을 닫거나 부분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비엔날레 참여 배제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제기된 불안정한 노동 문제의 해결이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전쟁과 각종 갈등, 인권이 난무한 세계를 예술의 형태로 응축한 곳이자, 예술로 각축전이 벌어지는 현실이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총 예술감독 코요 쿠오Koyo Kouoh는 전시를 준비하던 중인 2025년 세상을 떠나 화제가 됐다. 그녀가 준비한 본전시 주제는 ‘In Minor Keys’로, 크고 작은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단조에 영감받아 조용한 속삭임, 침묵과 같은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기를 제안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덕에 단조의 소리는 섭외한 작가들의 작품에서만 머물 뿐, 비엔날레 현장은 소란스러웠다. 제주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담은 요이Yo-E Ryou의 설치 작품도, 마이클 주Michael Joo의 켄케이 쌓인 인류와 지구의 시간과 기억이 담긴 화석의 진동마저도.

나에게 '극장의 마법'이란 '현존presence'이다. 객석의 모든 관객이 그 순간에 온전히 함께 존재하면서도 아무도 개인적인 삶이나 고민을 떠올리지 않는 것, 그게 마법 아닌가. —알렉산데르 에크만Alexander Ekman

생명력이 넘치는 여름의 한복판, 저물지 않는 태양이 눈부신 빛을 내리쬐다. 존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현실이라는 무대의 막이 내리고, 환상과 몽상이 뒤섞이며, 이성은 끝내 스러진다. 낮게 전율하는 목소리와 깊고 풍성하게 감싸는 선율, 제단 위로 추락하는 얼굴 없는 신사들. 6월, 서울 한복판에서 개구쟁이 몽상가의 매혹적인 꿈속을 유영했다. 잠시 지친 일상을 뒤로 하고 그 세계에 빨려 들어갔다 돌아오니 아차, 월요일. 그야말로 '한여름 밤의 꿈'이었네.

김태희 [문화+서울] 에디터 | 사진 제공 LG아트센터 서울



**[문화+서울]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은평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유종아트센터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서울

당신의 희곡을 입력하세요

2026. 08. 31. ~ 9. 14. 18:00

# 희곡제

# 유는후

# 의극장

**지원자격**  
개인  
(신인 및 기성작가)

**공모부문**  
창작/장막 희곡

**지원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서울